

한국교회연합, 3·1운동 107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

“진리 안에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정신 되새겨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이 3월 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배로예수교회(담임 김기용 목사)에서 3.1운동 107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교연 임원과 회원교단 목회자-장로-평신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삼일절 기념식과 2부 감사예배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 기념식은 상임회장 장시환 목사의 진행으로 대표회장 천환 목사가 대회사와 함께 모두 일어나 애국가를 제창한 후 서기 정광식 목사가 한교연 삼일절 107주년 기념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어 감사최성호 장로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한 후 ‘삼일절 노래’ 제창으로 마쳤다.

한교연은 삼일절 107주년 메시지에서 “107년 전 일어난 3.1만세운동은 일제의 국권 강탈로 삶의 희망을 잃고 비탄에 잠겨있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적으로 확증한 위대한 사건이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될 사실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자발적 결사 운동이었다는 점”이라며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꽃피운 3.1만세운동의 정신을 후대인 우리가 기억하며, 해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발자취를 기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다.

이어 “오늘 한국교회는 국가와 사회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동성애가 밀려오고 무속과 미신이 판치는 현실에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면 함께 힘들어 떠나려갈 수밖에 없다”며 “지도자들이 먼저 교회를 분열시킨 죄과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교회를 말씀 안에서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영적으로 깨어나 107년 전 믿음의 선각자들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실천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부 감사예배는 공동회장 김기용



한교연 3.1운동 107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목사의 인도로 목도와 신앙고백, 찬송가 582장 찬송, 상임회장 이영한 장로의 대표기도, 총무협의회 회장 서영조 목사의 ‘요한복음 8장 32절’ 성경봉독 후 보배로운 예수교회 오케스트라의 축주에 이어 대표회장 천환 목사가 ‘3.1운동과 진리운동’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천환 목사는 설교에서 “107년 전 3.1만세운동은 죽음 가운데서 신앙적 정신적 생명을 회복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목숨을 건 진리 운동이었다”며 “우리 모두

그 영광과 책임이 동반된 자리에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열었다.

천 목사는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며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유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했다.

이어 “3.1운동은 신구약 성경을 기초로 말씀과 교회, 기독교학교가 혼연일체가



한교연 3.1운동 107주년 기념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연

데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운동으로 승화되었다”며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이를 본받아 성경적 가치 안에서 분열을 회개하고 진리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연합운동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배는 보배로예수교회 봉헌 특송과 공동회장 조영호 목사의 봉헌기도에 이어 ‘국가의 안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김병근 목사(명예회장), 삼일운동의 정신으로 나라의 복을 통일을 위

해 안중수 장로(회계), ‘지방선거에서 바른 일꾼이 선출되도록’ 이병순 목사(공동회장),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해’ 강인규 목사(공동회장), ‘한국교회영적 성장과 연합을 위해’ 최철호 목사(공동회장) 순으로 특별기도가 이어졌다.

이날 기념예배는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의 광고와 찬송 586장을 부른 후 중경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축도로 모두 마무리됐다. 김진영 기자

“AI는 설교를 생성할 순 있지만 ‘삶’을 전달할 순 없다”



2026 패스웨이 설교 콘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선한목자교회



2026 패스웨이 설교 콘퍼런스 강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병락 목사, 신성욱 교수, 김다위 목사, 이정규 목사 ©선한목자교회

AI 시대 설교 본질 묻는 ‘패스웨이 설교 콘퍼런스’ 열려

AI 시대 설교의 본질과 역할을 모색하는 ‘패스웨이 설교 콘퍼런스’가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담임 김다위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전도사, 신학생을 대상으로 ‘AI 시대, 설교는 어떻게 살아남는가?(AI는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바يب을 신드롬 아카데미가 주최하고 선한목자교회가 주관했으며, 강남중앙침례교회, 시광교회, 니르크리스천 리더십연구소가 협력했다.

◆ AI 시대 설교의 위기와 기회… 학문과 목회 현장 있는 4개 세션 구성

이번 콘퍼런스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돼 학문적 분석과 목회 현장의 실제적 통찰을 함께 다뤘다.

신성욱 교수(아신대 설교학)는 ‘AI 차별화된 설교의 해결책인가?’를 주제로 AI 기술을 설교 영역에 적용하는 문제를 신학적·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는 ‘AI 시대의 기회와 위협, 성육신적 설교를 회복하라’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는 ‘AI가 만들 수 없는 이야기-증언으로서의 예화를 통해 인간의 체험에서 비롯되는 이야기의 힘을 조명했다. 이정규 목사(시광교회 담임)는 ‘공동체 형성으로서의 설교-기술적 영역의 설교를 넘어서서’를 주제로 설교자의 공동체적 역할을 강조했다.

◆ “AI는 도구인가 대체자인가?”… 성육신적 설교 회복 촉구

김다위 목사는 AI 기술이 설교 사역에 가져오는 기회와 위협을 신학적·성경적으로 분석하며 ‘성육신적 설교의 회복을 촉구했다. 그는 “AI를 이미지 생성이나 인포그래픽 제작과 같은 보조적 도구로 활용할 경우에는 유익한 아군이 될 수 있지만, 설교의 본질인 영적 만남과 체화, 공명을 대신하려 할 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Michael Frost가 말한 ‘탈육신(Excarnation)의 시대’를 언급하며, 현대인이 물리적 현장을 기피하고 스크린 뒤로 숨는 문화가 초대교회가 맞섰던 가련설(Docetism)의 디지털적 재현과 유사하다”며 “AI가 생성한 설교는 문법적으로

정교할 수 있으나, 실제 삶의 체험과 고난, 눈물이 담기지 않는 한 본질적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성육신에 있다고 강조하며, 설교의 진정한 예토스는 십자가를 통과한 설교자의 삶과 상처, 눈물에서 비롯된 다”며 “설교는 단순한 데이터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출발해 삶으로 체화되고, 공동체 안에서 공명하는 사건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를 ‘3E 전인적 순환 설교 모델’로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과의 실존적 만남(Encounter), 말씀이 설교자의 삶 속에서 몸을 입는 체화(Embody), 성령의 역사로 청중의 삶에 울려 퍼지는 공명(Echo)이 설교의 핵심 구조”라며 “AI 시대 설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히려 느린 영성과 아날로그 영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두 번째 뇌 개념’을 목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목사는 “과거 목상 노트와 간증문, 설교문, 영적 일기를 AI에 축적해 자신의 영적 여정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와 대화할 때, AI는 대체자가 아닌 기억을 돕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성육신적 설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히며, 설교자는 데이터를 넘어 영혼을 끌어안는 존재”라고 전했다.

◆ AI는 경험할 수 없다… 공동체 한가운

데 션 설교자의 역할

이정규 목사는 AI 시대 설교자의 자리를 재조명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교리적 설교, 예화 구성, 본문 주해까지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특정 설교자의 스타일과 어투까지 구현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설교자를 공동체 한가운데서 이야기를 이끄는 존재로 정의할 때,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AI는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그 메시지를 실제로 경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설교자의 역사와 성품, 꿈, 예토스가 설교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청중은 설교의 내용뿐 아니라 설교자 자신을 경험하며, 그가 살아낸 진리를 본다”며 “AI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야기를 살아낸 경험을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앙의 영역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설교자의 경험조차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AI 시대 설교가 공동체 내러티브를 중심에 두어야 하며, 기술은 그 내러티브를 돕는 보조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간증의 역할을 재고하고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설교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지동 기자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로/코팅액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공적 입양 체계 지연 논란... 이종락 목사 제도 개선 촉구

결연 후 7개월 대기 지적... 아동권리보장원 앞 기자회견

2025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국가가 입양 실무를 전담하는 '공적 입양 체계'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양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입양 절차가 오히려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는 최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입양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입양 체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입양부모가 결정된 아이들이 행정 지연으로 인해 시설에 머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결연 후 첫 만남까지 수개월... 공적 입양 체계 절차 지연 지적
입양예비부모들의 설명에 따르면, 제도 변경 이전에는 결연이 이뤄진 뒤 첫 만남

까지 평균 2~3주 정도가 소요됐다고 했다. 그러나 공적 입양 체계 시행 이후에는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다. 2025년 10월에 결연이 성사된 아동이 2026년 1월에야 첫 면접을 진행했고, 임시 양육은 5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은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부모와 아이 사이에 형성돼야 할 애착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종락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보호아동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지금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 입양 체계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절차 지연으로 인해 오히려 아동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는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앞에서 입양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입양 체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취 측 제공

◆"온라인 접수 불가 등기 불편만 해소"… 행정 절차 비효율성 제기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예비 입양 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의 행정 절차가 과도하게 경직돼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고 등기 불편만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으며, 주소 기재 실수와 같은 사

소한 오류로 서류가 반송돼 한 달 이상을 허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절차가 디지털 행정 환경에 역행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행정 편의주의가 아동의 입양 절차보다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적 입양 체계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주

장이다.

또한 결연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도 언급됐다. 일부 예비부모들은 부결 통보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받지 못했으며, "수용 범위를 넓히라"는 식의 모호한 설명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 신청 단계에서도 관련 서류 안내가 명확하지 않아 예비부모들이 절차를 다시 밟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계별 처리 시한 명문화 등 제도 개선 요구

이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적 입양 체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단계별 처리 시한을 명문화하고, 심사 기준과 부결 사유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자체, 법원 간 실무 협업체를 가동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입양예비부모는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부모가 된 사람

들"이라며 "행정의 편의가 아이의 인생보다 앞설 수 없고, 절차가 애착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입양단체들은 공동 입장을 통해 "공적 입양은 국가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더 이상 시설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종락 목사와 예비 입양부모들은 피켓을 들고 아동권리보장원 인근에서 서울시청 광장 일대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공적 입양 체계의 운영 실태 점검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대응을 촉구했다.

공적 입양 체계가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장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기장 동반대 "독소조항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환 목사, 기장 동반대가 최근 국회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담

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장 동반대는 성명서에서 "기독교는 독소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는 10여 차례가 넘는다. 2007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고, 2008년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

금지법에는 금지 조항이 22개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2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런 형태의 법안들은 지난 19년 동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2026년 손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조항이 25개나 되며, 집단소송과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같은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이를 반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징역형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장 동반대는 "혐오표현 규제 법안도 혐오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게 정의돼 법적 판단의 자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논쟁을 과도하게 법적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별 정체성이란 개인이 느끼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젠더의 경험을 인정하지는 것이고, 성적 지향이란 개인의 성적 끌림이 향하는 방향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지켜 온 건강한 가정 개념이 무시되고 정상 가정이 해체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12월 19일 유엔 총회 '장애인 권리에 관한 핵심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삭제한 수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별은 오직 남자와 여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노형구 기자

또한 "최근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했고, 성 평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법으로 관철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 제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이루는 정상 가정의 개념을 무시하고 동거나 비혼 동거를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정하려 하며, 동성 결혼도 인정하려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성적 이탈의 방편인 동거를 부추기고 정상 가정을 해체하는 국정 과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독교계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성경을 거역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같은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국기인권위원회도 그동안 옹호해 온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형구 기자

BEYOND ENTERTAINMENT ELEVATING EXCITEMEN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키오티클러스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 플러스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김문훈 목사, 포도원교회 담임직 사임

당회 입장문 내고 "사임서 수리... 노회에 사임 허락 청원"



부교역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파문을 일으킨 김문훈 목사(사신)가 포도원교회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당회는 이를 수리했으며, 교회가 속한 예장 고신 부산서부노회에 사임 허락을 청원했다. 앞서 그는 교단 부총회장 사임서도 총회 측에 제출했다. 포도원교회 당회는 2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당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본 교회 담임목사와 관련한

논란으로 인해 한국 교계와 성도 여러분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머리 숙여 깊이 사파드린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내면의 상처와 고통을 겪으신 부교역자분들께 형언할 수 없는 미안함과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회는 "2026년 2월 27일, 김문훈 목사는 사임서를 본 교회 당회에 제출하고, 당회는 이를 신의한 후 사임을 수리했으며 부산서부노회에 사임 허락을 청

원했다"고 밝혔다. 당회는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교회와 목회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고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성도들 또한 교회의 공식 절차를 신뢰하며, 추측과 비방을 삼가고, 기도과 절제된 언어로 공동체의 하나 됨을 지켜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문훈 목사는 3월 1일 포도원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하지 않았다. 김진영 기자

전피연, 신천지 간부 성비위·횡령 의혹 고발... "이만희 배임 혐의 수사해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대표 신강식)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고위 간부들의 성비위 및 대규모 횡령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피연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신천지에 수교증거장막상전 총회장 이만희 씨와 현 지파장 이 모 씨, 전 지파장 김 모 씨 등을 형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피연에 따르면, 현 지파장 이 모 씨는 과거 청년회장 재직 당시 종교적 위계를 이용해 소속 신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청년회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해 사적으로 사용했

다는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주취 측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 요직에 기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전 지파장 김 모 씨는 현재 수사 중인 전 총무 고 모 씨와 공모해 100억 원대 조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피연은 주장했다. 전 피연은 신천지에서 사용되다 폐기된 데스크톱 컴퓨터, 이른바 '황금 PC'를 확보해 일부 데이터를 복원했으며, 고 모 씨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 일체를 고발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모 씨 관련 내부 제보 자료와 피해자 증언을 정리한 보고서 역시 증거 자료로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피연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간부의 배임 의혹을 인지하고도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내부 징계를 그치는 등 조직 자산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피연은 ▲성비위 및 횡령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100억 원대 자금 유용 의혹 전수 조사 및 환수 ▲총회장의 배임 혐의 규명 ▲종교 단체 내부 폐쇄성을 약화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공권력 집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피연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실제적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 자유와 신앙 지키며 국가 위한 기도와 책임을”

성도들, 3·1절 맞아 나라와 민족 위해 금식기도... 북한 병사 구명 위한 특별순서도

국가연합기도가 31절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기도성회를 열고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북을통일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국가연합기도는 31절 제107주년이었다 1일 오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금식기도회에서 ‘국가’를 위한 31절 금식기도성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현장 참석자들과 함께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과 해외 성도들도 동참했다.

주최 측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의 독립 의지를 선언했던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번 성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순서에서는 박명수 교수(전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장,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가 31운동의 신앙적 의미와 역사적 정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가 합심기도를 인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끌었다.

“31운동, 자유민주국가 향한 결단... 기독교의 역사적 역할 강조”

박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31운동이 단순한 항일 독립운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1운동은 전 민족이 참여한 운동이자, 우리 민족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선택한 결단의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준비와 실행, 이후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당시 조선이 중국식 질서, 일본식 근대화, 러시아식 공산주의 등 여러



국가연합기도 31절 금식기도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국가연합기도

선택지 앞에 놓여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모델을 지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1948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국가로 세워졌으며, 이는 31운동의 정신이 구체화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기미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31운동이 남긴 핵심 문서로 소개

하며, 그 정신의 핵심을 ‘독립’과 ‘자유’로 정리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나라로 인식됐고, 민주공화국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31운동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민



국가연합기도 공동대표이자 에스더기도운동 대표인 이용희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국가연합기도

족은 이미 자유와 민주, 세계와의 연대를 선택했으며, 이러한 방향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삼권분립 등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31운동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적 책임을 감당한 대표적 사례”라며 “한국교회는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동시에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키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도와 책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별 중보기도도 이어졌다. 염보연

목사(김담처처)는 다음세대를 위해, 박승길 목사(하나로교회)는 한국교회를 위해, 김요한 목사(성혈감리교회)는 신학교와 신학 교육을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하며 한국교회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간구했다.

특히 이날 성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 포로가 된 북한 병사들의 구명을 위한 특별 순서가 마련됐다.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회의원(국민의힘)과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가 발언에 나섰다. 전쟁 종식과 함께 이들의 석방과 인도적 보호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이용희 공동대표는 “31절 만세운동은 107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고,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북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기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성회가 한반도의 자유와 북을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된 기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2면 김진영 기자

美국무부 종교자유 관계자 5명, 한교총 방문

제9-2차 상임회담회의서 보고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한교총 회의실에서 제9-2차 상임회담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 회계 감사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단기성 사업을 중장기 전략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국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국가 정책과의 연

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럴 경우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지원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임회담회의가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최근 국회에 발의된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응을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소속 종교자유 담당 관계자 5명이 지난 23일 한교총을 방문한 사안도 보고됐다.

또 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 명칭에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지역 교계 단체

들이 요청할 경우 한교총 명칭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4월 5일로 예정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행사는 70여 개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주최한다. 그러면서도 한교총이 향후 한국교회 연합 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석 대표회장은 “부활절 연합예배가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구조가 돼야 하되 한교총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코로나 현장예배 벌금 유감... 사법부, 종교 자유 이해 부족”

코로나 집합제한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논평

한국교회언론학회(대표 안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코로나19 당시 현장예배와 관련해 교회 목회자에게 벌금형을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언론회는 27일 발표한 논평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고 현장예배를 드린 혐의로 기소된 손헌보 세계로교회 목사(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된 판결을 비판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부산시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

심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형을 확정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사법부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에는 신념과 양심에 해당하는 내면의 자유와 함께 예배와 선교, 종교 집회 등 외적 실천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중교통, 식당, 공연장, 백화점 등은 조건부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된 반면,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한이 이뤄진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회

는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왔음에도 예배만을 제한한 것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판결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도 “본보기식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부족으로 보인다”고 했다.

언론회는 또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언급하며, 종교의 자유에는 공적·사적 예배와 의식을 통해 신앙을 표현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사법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해 최대한 폭넓은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부족을 드러낸 사례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민족복음화 부천본부 출범한다... “2027 대성회 향한 지역 거점”



발대식 및 대표본부장 취임예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907년 평양대부흥 120주년과 1977년 여의도 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교회 부흥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지역 기반의 복음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부천본부 대표본부장은 이기도 목사가 취임한다. 이 목사는 주예수이름교회 담임목사로, 어병세계선교회 대표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선교노회 증경노

회장,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제51대 총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교계 연합과 선교 사역에 힘써왔다. 행사에는 총재 이태희 목사가 참석해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 2027년 대성회를 향한 비전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은 단순한 지역 조직 출범을 넘어 전국 단위 영적 대각성을 위한 전략적 거점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최근 한국교회가 세속화와 신앙 약화, 교회 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회개운동과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통해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사군구 조직 확대와 기도 중심의 영적 각성운동, 다음세대와 북한 동포를 향한 복음 전략, 국내외의 선교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태희 목사는 이번 부천본부 출범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조직 발족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와 성령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언”이라며 “지역에서 시작된 불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교회와 위기라는 말이 많지만, 본질인 복음으로 돌아가면 길은 분명하다”며 “복음만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2027년은 과거를 기념하는 해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영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당부도 전했다. 이 목사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이 되어 달라”며 “기도와 전도의 현장에서 함께 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교회학교 부흥하려면... 신앙교육 넘어 ‘영혼구원’으로”

한어협, 다음세대 사역자 세미나 개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제 사역 전략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어린이부흥사협회(대표회장 박연훈 목사, 한어협)는 최근 경기도 용인 기흥 골드웨더리조트에서 ‘다음세대 사역자 세미나’를 열고 어린이청소년 사역의 본질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들은 공통적으로 교회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영혼구원과 영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학교는 또 하나의 학교 아닌 ‘교회 속의 교회’”

박연훈 목사(한어협 대표회장, 송도주 예수교회 교정목사)는 ‘뉴 선데이스쿨 핵심 키워드 7’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의 근본적 전환을 제시했다. 박 목사는 “교회학교가

또 하나의 교육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영혼구원의 방주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학교 △기도할 줄 아는 어린이 양육 △성경적 세계관 형성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꿈을 품는 다음세대 등이다. 이를 위해 6년 과정 동안 성경 암송과 찬양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점검 요소로 ①정체성 ②전도 ③찬양 ④예배 ⑤설교 ⑥소그룹 목양 ⑦전교인 참여 등 일곱 가지 영역을 제시했다. 특히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며 학교 앞 전도와 같은 적극적인 현장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어협 대표회장 박연훈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한어협



다음세대 사역자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한어협

박 목사는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도 “유치원식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어린이들이 예배를 통해 실제적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그룹 시간 역시 단순한 분반공부가 아니라 목양의 시간으로 운영해 말씀 적용과 기도, 삶의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도하는 어린이를 세우는 것이 핵심” 서간주 목사(생명샘교회)는 “다음세대를 깨우는 어린이 기도인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어린이 사역의 출발점을 기도훈련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어린이들이 형식적인 기도를 반복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

니라 영적 부모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동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린이 기도는 짧고 단순한 방식에서 시작하되 반복적인 훈련과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생활 속 신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공동체적 기도 경험이 신앙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예배·영성까지... 현장 사역 다뤄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다음세대 사역 주제도 함께 다뤄졌다. 김덕신 목사(에스라성경연구원 원장)는 성경적 설교 원리를, 조정환 목사(헤브론교회 담임)는 어린이부흥사 사역의 실재를 소개했다. 강명희 전도사(IP선교단 단장)는 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한 예배 접근을 제안했으며, 배재용 목사(찬양하는교회 담임)는 다음세대 사역자의 영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 이후 저녁 시간에는 살전 참관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자들이 실제 어린이 사역 현장을 체험하며 강의 내용을 적용해 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한어협 대표회장 박연훈 목사는 “다음세대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보다 본질 회복과 현장 적용이 중요하다”며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사역을 통해 장기적인 교회학교 부흥의 기반을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경남 지역 교회들, 목회 회복과 미래교회 전략 모색

지역교회 연합 속 ‘미래교회 전략 콘퍼런스’ 열려

경남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기도와 목회 전략을 나누는 ‘2026 미래교회 전략 콘퍼런스’가 26일 진해중앙침례교회(담임

강대열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매년 지역별로 진행되는 ‘원데이 다니엘기도회’의 일환으로 마련

됐다. 특히 올해 경남 지역에서는 경남지역협력교회연합회(대표 섬김이 노광수 목사)가 목회자들의 연합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 ‘미래교회 전략 콘퍼런스’ 형식으로 새롭게 진행했다. 원데이 다니엘기도회는

지역 교회들이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연합 기도운동이다.

콘퍼런스는 오륜교회 우미셀 목사의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이어진 메시지에서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는 영성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영성을 축적하는 일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지만 거룩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며 다니엘의 삶을 바탕으로 정리한 ‘홀리 해빗 무브먼트’를 소개하고, 기도와 말씀 등 일상의 신앙 습관이 목회와 교회 회복의 기초가 된다고 전했다.

강의 시간에는 삼호우리교회 정병인 목사가 ‘급변하는 지역교회 부흥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목사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밀착해 소통할 때 교회의 존재 의미가 강화된다”며, 지역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역이 교회 성장과 부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회 장석현 본부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지역 목회자들이 연합하고 목회의 동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역 교회 간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밝혔다.



2026 미래교회 전략 콘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다니엘기도회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인 김은호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다니엘기도회



삼호우리교회 정병인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다니엘기도회

참석자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진주 방주교회 양혜원 목사는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

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지역 원데이 다니엘기도회’는 오는 4월 19일 청주에덴교회(담임 호은기 목사)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LX 하우스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
퍼펙트 슬림뷰 :
베젤리스 설계

—
클리어 옛지뷰 :
논실리콘 디자인

—
멀티플 화이트뷰 :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18회)
LX Z:in 창호

LX Z:in

시온성교회, 기장 서울지역 원로목사 위로회 개최

기장 원로목사·사모 초청 감사와 섬김 이어져

서울지역 원로목사들을 초청해 감사와 위로의 시간을 이룬 시온성교회(담임 이은민 목사)가 올해도 뜻깊은 위로회를 마련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시온성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서울지역 원로목사와 사모들을 초청해 예배와 친교를 나누며 오랜 목회 사역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온성교회는 최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에 위치한 교회에서 서울지역 원로목사 위로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오랜 기간 교회와 교단을 위해 헌신해 온 원로목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이어져 온 자리로,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헌신을 보여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행사 당일 교회 성도들은 원로목사와 사모들이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환영 준비를 맡았으며, 참석자들은 따뜻한 환대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정성과 배려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와 말씀, 특별기도로 이어진 위로회 1부 개최 예배는 이종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연진 목사가 대표기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이선규 목사

도를 맡아 나라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렸으며, 사본 중창단의 찬양과 임마누엘 워십팀의 연주가 이어지며 예배의 은혜를 더했다.

이은민 담임목사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하며 신앙과 사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최진영 목사가 나라와 민족, 교단과 교회, 그리고 원로목사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기도를 인도하며 예배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애매와 말씀, 특별기도로 이어진 위로회 2부 개최 예배는 이종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연진 목사가 대표기

의 시간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박문원 목사의 식사 기도 후 애잔이 진행됐다. 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며 참석자들은 서로 교제하고 오랜 목회 여정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행사 전반에 걸쳐 안내와 섬김으로 원로목사와 사모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왔으며, 참석자들은 정성 어린 준비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시온성교회가 매년 이어오고 있는 서울지역 원로목사 위로회는 목회 사역을 마친 원로목사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자리로, 교회 공동체의 섬김과 감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정지동 기자

2026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 학원목회 연구회 콘퍼런스 열려

미국장로교청년연합수련회를 주력 사업으로... 한인교회 유기적 협력 강조

미국 유학생 및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 선교에 헌신해 온 학원도시 목회자들을 위한 2026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학원목회자 콘퍼런스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됐다. 이 모임을 통해 학원도시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교현장의 생생한 간증들을 나누며 미래 학원목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 전국협의회(NCKPC) 학원목회 연구회(회장 정순재 목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에서 주최한 이번 학원목회 콘퍼런스는 텍사스주에 소재한 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담임 이재호 목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캠퍼스 타운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 있는 미래인 청년들을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청년 선교의 해답을 찾는 기회를 가졌다.

개회예배는 정준모 목사(엘라베마, 오번-오펠라이카 한인 교회)가 사도행전 11

장 19-26절을 본문으로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을 주제로 등단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섰다"고 전제한 뒤, "디아스포라 유학생과 청년 목회현장 가운데 고난과 역경, 눈물도 많지만,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행복한 목회를 이어가자"고 도전했다.

주강사로 나선 이재호 목사(텍사스, 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는 'TEVA JOURNEY'를 주제로 2편의 주제 강의를 진행했다. 이재호牧사는 "가치 혼란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 캠퍼스가 놓여져 있기에, 청년 사역자는 방주로 청년들을 초대하는 사명이 있다"면서, "TEVA는 위기에서 살아남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이기에, 학원목회자들이 새로운 사명의 출발점에 선 듯한 결단으로 청년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첫번째 특강을 위해 등단한 함중현 목사(삼페인-에버나 한인교회 은퇴)는 "상처와 탈진을 통과하는 목회 회복의 길"이라는 제하의 특강을 통해, "학원사역의 현장성 상처와 함께 자존감이 흔들리는 탈진이 오게 되는데, 그 원인은 종의 자존감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에 모인 참석자들 ©주최 측 제공

"회복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이동, 정체성의 선언, 예배가 깊어짐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되찾을 때 가능하기에, 업무나 성과보다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허봉기 목사(뉴저지, 찬양교회 은퇴)는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라는 특강을 통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방법이 꼭 사회참여만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

한 후, "이타적이고 타인과 어울릴 수 있는 자기 초월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목회 사역이 이어가는 가운데, 비록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특강을 맡은 최병훈 목사(중서부 한미노회 사무총장)은 "AI 세대의 AI"라는 제하의 특강을 통해, "AI 세대인 청년 목회 가운데 정보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과 공동체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묻고

확장하는 AI(Apreciative Inquiry, 감사 질문)를 통해 청년 목회에 생명력을 줄 수 있다"면서 "감사 질문을 통해 문제 너머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청년 사역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 수요일 배를 위해 등단한 허봉기 목사(뉴저지, 찬양교회 은퇴)는 발립보서 1장 20-26절을 본문으로 "죽음을 넘어서 삶"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은혜이기 때문"이라면서 "죽음 이후에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변함이 없기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요한복음 6장 5-13절을 본문으로 "앞서는 계산법 내려놓기"를 주제로 폐회예배에 나선 정순재 목사(조지아, 에덴스 한인장로교회)는 "신앙은 계산을 없애는 과정이 아니라, 계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내게 없는 부족함보다, 내게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회의 현장이 되자"고 권면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를 위해 집회장과 숙박 식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 이재호 목사는 "학원목회는 열매가 빠르게 보이지도 않고, 정

작보다 떠남이 많은 사역인데, 학원목회자 부부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면서 "이번 콘퍼런스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어 더 큰 헌신이 일어나 목회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 가운데, 수요일에 시간을 내서 휴스턴의 상징인 NASA 우주센터 견학을 통해 학원 목회 현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휴스턴 영락장로교회(백종석 목사)도 25일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학원목회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재왕 목사(NCKPC 전국 청년수련회 준비위원장)는 "오는 11월 추수감사절 기간에 학원목회연구회의 주력 사업인 제 9회 미국장로교 연합 청년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한인교회들의 유기적인 협력 가운데, 더욱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번 학원목회 콘퍼런스를 통해 각 지역에서 고립되어 사역하던 목회자들에게 상호 격려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미국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 가는 지속 가능한 청년 사역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민선 기자

이민교회 학술 공백 속... 바울세계선교회, 성경적 종말론 연구 주목 돼

최근 이민교회 안에서 성서 연구와 학술적 토론의 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바울세계선교회(대표 한영숙 목사)가 성경 중심의 공개성서 강좌를 다시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강좌를 넘어 성경 속 종말사상을 통전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바울세계선교회는 최근 메트로폴리탄 연합장로교회(담임 김진우 목사)에서 제1회 공개성서강좌를 열었다. 지난 20일에는 뉴욕대학교 정의현 교수가 '구약의 묵시문학', 24일에는 전인숙 목사(은혜교회)가 '신약의 묵시문학'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강좌는 종말론과 직결되는 묵시문학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종말 이해를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영숙 목사는 이번 강좌를 기점으로 성경 속 '종말사상'을 한 데 묶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두 개의 강의와 과거 80년대 자신이 연구했던 '공



바울세계선교회 대표 한영숙 목사가 최근 열린 제1회 공개성서강좌에서 인사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관복음의 종말사상', 2006년 발표한 '요한복음의 종말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바울의 종말사상'에 관한 원고를 공모해 연구를 보완함으로써 총 다섯 영역에 걸친 종말론 연구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별 본문 강해를 넘어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종말 신앙의 구조를 재정리하려는 시도다. 구약 묵시문학, 공관복음, 요한복음, 바울신학, 요한계시록을 아우르

는 종말 이해를 하나의 신학적 체계 안에서 통합함으로써, 종말론을 특정 본문이나 시대적 논쟁에 국한하지 않고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것이다.

바울세계선교회는 1997년 (고) 김중환 목사가 설립한 기관이다. 설립 이후 이민교회 안에서 간과되기 쉬운 신학·학문적 연구를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메트로폴리탄연합장로교회 원로 한영숙 목사가 선교회를 이끌고 있다.

한영숙 목사는 이미 1983년 제1회 부활절 공개성서강좌를 시작으로 25년간 학술 발표회를 이어온 인물이다. 그는 매년 성탄절 이후 약 3개월간 성경을 집중 연구한 뒤 부활절 강좌를 열었고, 이 같은 흐름을 25년간 유지했다. 단순한 성경공부 차원을 넘어 특정 주제를 정해 본문을 심층 분석하고 발표하는 학술 형식의 강좌였다. 목회 중후반기에는 UMC의 역사성 있는 맨하탄 성전을 도맡아 되면서 강좌

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은퇴 이후 다시 연구 중심의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민신학총서' 발간 사업도 계속된다. 이민신학총서는 이민교회와 신학적 연구를 위해 2002년부터 시작된 연속 학술 출판 프로젝트다. 이민 신학의 정립을 목적으로 설교, 신학 연구, 문학 작품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출간해왔다.

제1권은 한영숙 목사의 설교집 『공관복음서의 탄생사화를 중심으로 한 설교집: 성탄절 이야기』(2002)로 출간됐으며, 제2권은 누가복음 강해 설교집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2012)다. 제3권은 김중환 목사의 시화집 『강변의 노래』(2018)이며, 이후 고 김중환 목사의 유고작 『처음의 노래』도 이민신학총서로 발간됐다.

올해는 고 김중환 목사가 남겼던 기도문과 그림 시 등을 정리해 출간할 예정이다. 김 목사는 생전 철학과 기독교교육을 공부했으며, 이외 다양한 문화활동을 병

행해 왔다. 선교회는 그의 신학적·문학적 작업을 정리해 이민교회 안에 남겨진 학문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총서는 이민자의 삶과 신앙, 이민교회의 형성과 예배 처소 문제, 성경 해설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영숙 목사는 체력이 되는 한 시간 축적해온 공개성서강좌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그간의 자료들과 새로운 자료발굴도 꾸준히 하면서 이민신학의 학문적 지

평을 더욱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영숙 목사는 "젊은 후배 목회자들을 볼 때 성서 연구에 더욱 힘써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성경을 중심에 두지 않는 신학은 오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 문화적 흐름을 지나치게 쫓거나 사회운동 등 특정 이념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교회는 결국 성경 위에 기초할 때 건강하게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감사한인교회 창립 43주년 박신일 목사 초청 부흥성회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는 3월 13-15일 박신일 목사 (그리스어인교회)초청 창립43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연다.

박신일 목사는 지난 23년간 밴쿠버그레이트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해 왔으며, 한국 사역을 포함해 총 39년간 목회했다. 김민선 기자

보령시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심장

탄소중립 선도 도시

보령

- 탄소중립 에너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
- 지방소멸기금 투자 우수지역 선정

한인동산교회, 2대 이풍삼 목사 은퇴·3대 이홍길 목사 위임

한인동산장로교회가 22일 오후 4시, 제2대 이풍삼 목사 은퇴 및 제3대 이홍길 목사 위임예배를 드리며 한 세대의 헌신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RCA 뉴욕지역대회(Regional Synod of New York) 주관으로 열린 이날 예배에는 대회 관계자들과 RCA 한인 목회자들이 함께 이풍삼 목사의 20년 목회의 열매를 기리고, 51년 교회의 바통을 이어받는 새 리더십을 축복했다.

◆목회의 절반 20년, 한인동산과 함께 달려... 이풍삼 목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역 40년, 한인동산장로교회 목회 20년을 마무리하는 이풍삼 목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함께 걸을 지켜준 사모를 향해서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이제 곧 3월이 시작되는 데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달도 3월이었다"며 "결혼 직후 아내와 함께 사역의 길에 들어섰는데 40년을 그렇게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가운데 20년 2개월을 동산교회와 함께 했다. 목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교회에서 보냈다"며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그는 "저는 스스로 목사가 될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20년 사역을 돌아보며 그는 "20년이면 섭섭한 일도, 원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다. 다 깨내면 두

꺼운 책이 될 것"이라며 웃음을 보였다. 그러나 곧 "그 모든 것을 꺼내지 않고 묻어주고, 용서해 주고, 격려해 주며 여기까지 오게 한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제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라며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염려 없이 떠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홍길 목사 마음 모아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달라"며 "주님의 구령 사역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을 것"... 동료 이재봉 목사 축사

축사를 전한 이재봉 목사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면류관은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며 "헌신적으로 양 떼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다해 충성하신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길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풍삼 목사는 뉴욕 교계에서 존경받는 어른 목사로서, 바쁜 가운데서도 후배 목회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자상하게 돌봐주셨다"며 "목사님의 신실함과 겸손함은 우리 모두에게 큰 본이



2대 담임 이풍삼 목사(좌)와 3대 담임 이홍길 목사(우), 박미혜 사모(맨 좌측)와 신승연 사모(맨 우측)도 함께 자리했다. ©김대원 기자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혹 사역 중 다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퇴 이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함께하시고, 사모님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51년 달려온 힘 이어받을 것"... 이홍길 목사, 전임 목회자들의 노고에 감사

위임 인사에 나선 이홍길 목사는 "3대 담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면서 "또 오늘 이 자리까지 교회를 지켜온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인동산장로교회가 속한 RCA 뉴욕대회 관계자들과 RCA 한인 목회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김대원 기자

이 목사는 교회의 리더십 교체를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을 비유로 들었다. 그는 "쇼트트랙은 앞선 선수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을 받아 다음 선수가 달린다"며 "한 사람이 혼자 달리는 경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목회자들이 51년의 시간을 달려오며 힘을 밀어주셨고, 이풍삼 목사께서 20년 동안 트랙을 돌며 쌓은 힘을 제게 넘겨주셨다"며 "저는 그 힘을 이어받아 이제 달리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목회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기쁨과 감사, 슬픔과 어려움을 나누는 공동체

로 계속 성장해 가길 바란다"며 "다음 세대가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1부 예배는 이풍삼 목사의 인도로 박준열 목사 기도, 동산성가대 '여호와와 위대하다' 찬양에 이어 RCA 뉴욕대회 부대회장인 존 반덴오버 목사(John VandenOever)가 설교했다. 그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 모으셨다"며 "목회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전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헛다아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고 강조했다.

은퇴식은 김한수 장로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정대용 장로가 감사패를 증정했다. 대회 서기 임지운 목사가 대회 증서를 전달했다.

위임식은 대회장 사무엘 T. 클로버 목사(Samuel T. Clover)가 집례했다. 임지운 목사가 노회 가입을 선포했고, 류승례 목사가 위임목사에게 권면했다. 이어 위임 선언과 선포 후 환영사 및 기념패 증정이 있었고, 김기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교인들을 향한 권면을 맡은 노널드 J. 후버 목사(Donald J. Hoover)는 새 담임목회자를 맞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했다. 김대원 기자

평강교회, 창립 45년 만에 첫 로자리또 단기선교

사우스페서나 평강교회(담임 송금관 목사)가 2월 21일 멕시코 로자리또로 첫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이번 선교는 교회 창립 45년 역사에서 성도들이 함께 국경을 넘어 선교지로 나아간 첫 공식 선교로, 교회는 이를 "복음에 빛난 자로서 내딛는 역사적 첫걸음"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새벽에 출발해 당일 귀가하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내는 선교'와 '가는 선교'가 한 마음으로 연결되는 시간이었다.

평강교회는 선교를 앞두고 샘플선교회 그레이스 임 선교사를 초청해 사전 브리핑을 듣고, 현장을 향한 중보기도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 물품을 준비하고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등 교회 전체가 '첫 선교'를 함께 세워가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96세 권사가 건강상 동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마음을 담아 성도들을 위한 후원 헌금을 전해 공동체에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다.

선교 준비의 중심에는 로마서 1:14-16 말씀이 있었다. 송금관 목사는 파송 메시지에서 바울의 고백을 따라 "나는 빛진 자다(정체성)-그러므로 전하고 싶다(열망)-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답대



로자리또 단기선교를 기념하면서. ©교회 측 제공



단기선교 현장의 모습. ©교회 측 제공

함"라는 흐름으로 복음 전파의 본질을 선포했다. 그는 "시간이 짧고 순종이 작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첫걸음'이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영적 전쟁이며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음은 소유물이 아니라 생명이며, 생명은 흘러가야 한다"며 교회가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밖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전했다.

선교팀은 로자리또 지역의 샘플교회를 방문해 예배와 교제, 다음 세대와 지역 공동체를 위한 섬김을 진행했다. 현지 사역은 멕시코칼리와 로자리또 일대에서 30년 이상 사역해 온 김용기 선교사가 협력했으며, 샘플교회는 설립 6년 차로 출석

30-40명 규모, 어린이 비중이 높아(약 20-30명)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한 현장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가수도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며, 현지인 사역자 안수 준비도 진행 중이다.

평강교회는 이번 선교를 단발성 행사로 마무리하지 않고, 샘플선교회 및 현지 교회와의 지속적인 동역을 통해 복음의 통로를 넓혀갈 계획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고백으로, 지역과 열방을 향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부고

미주평안교회 송순애 사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미주평안교회 송정명 원로목사의 아내인 송순애 사모가 지난 2월 24일(화) 새벽 3시 5분경, 향년 7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951년 5월 18일 출생한 고(故) 송순애 사모는 1970년 이화여고를 거쳐 1974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재원이다.

1975년 6월 송정명 목사와 결혼 후 같은 해 도미하였으며, 미주 복음화를 위한 헌신적인 삶을 시작했다. 고인은 1988년 11월 송 목사가 미주평안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로 성도들을 돌보며 헌신해 왔다. 특히 송 목사가 40년 성역을 마무리하고 2013년 8월 원로목사로 추대되까지, 묵묵히 내조하며 미주평안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끈 신앙의 동반자였다.

고인은 생전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다. 젊은 시절부터 이룬 찬양에 대한 열정은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며,



미주평안교회 송정명 원로목사의 아내인 송순애 사모와 가족들.

많은 성도에게 깊은 감동과 귀감을 주었다.

미주평안교회(담임 박병열 목사) 측은 고인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으며, 그 신앙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장례를 교회장으로 거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친족환송예배는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 본당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선교는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제자(사람)’를 세우는 일이다”(上)

배안호 선교사의 책 사다리(8) '선교지 예배당 건축 이야기'
변창욱, <선교지 예배당 건축 이야기>(도서출판 케노시스, 2022)



들어가는 말(서론) “예배당 건물은 외국 선교 자금으로 건축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제자를 남기는

리한 책이다. 서평자는 몽골,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선교 현장의 교회 건축 사례와 변창욱 교수의 '선교지 교회 개척과 자립'을 주제로 한 소논문을 중심으로 간략히 서평 할 것이다.



배안호 선교사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서 안전가 떠나야 하는 자이다. 선교사는 현지 교회의 자립(自立)과 이양(移讓)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공한 선교사는 건물이 아닌, 사람(제자)을 남긴다. “선교사는 교회를 낳는 ‘산모’가 아니라, 현지 교회가 스스로 사명감을 갖고 교회를 설립하도록 돕는 ‘산파’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선교지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현지인 중심의 건강한 토착교회를 세우는 방법 혹은 참고할 만한 멋진 매뉴얼이 있을까?”

<선교지 예배당 건축 이야기>(변창욱, 도서출판 케노시스, 2022)는 서평자가 꼭 쓰고 싶었던 바로 그 책이다. 한국교회 선교는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이 주류이다.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있다. 솔직히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은 곧 '예배당 건축'과 동의어가 되었다. 이 책의 저자, 변창욱 교수는 필리핀 선교사(2003-2006)로서 '건강한 자립교회 세우기'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다.

본서는 저자가 10명의 PCK 선교사와 인터뷰, 비대면(이메일/SNS/카톡)을 통해 세계선교 현장의 다양한 교회 개척과 예배당 건축 사례를 1년여 동안 수집 정

1. 몽골교회 개척과 자립: 도심지 교회 개척, 예배당 건축과 리더십 이양 (하석구 선교사)

몽골은 세계 선교지 중에서 한국교회 주도형 선교지다. 몽골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는 한국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교회와 건축되었다. 하석구 선교사는 차과와사, 부인인 이영숙 선교사는 약사로, 부산에서 개원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란히 장로회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몽골선교사(2004. 12-2015. 06)로 활동했다. 울란바토르 베다니마을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당을 건축했다.

몽골 연세전선병원과 전문인 선교 중에 가정교회로 시작, 2명의 선교사 가정과 연합 목회를 했다. 몽골은 도시 전체 교회는 곧 '예배당 건축'과 동의어가 되었다. 이 책의 저자, 변창욱 교수는 필리핀 선교사(2003-2006)로서 '건강한 자립교회 세우기'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다.



몽골 베다니마을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한 하석구, 이영숙 목사 부부

했고, 3인의 연합목회 위력을 발휘했다.

1) 네비우스 자립 원리와 울란바토르 예배당 건축: 유연한 자립선교 적용(자립에 예외적 인정) 하석구 선교사의 대도시 중심 교회 개척 및 예배당 건축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전략적 측면에서 대도시 중앙부에 교회 개척 필요성 △현지 교인들도 힘을 다해 교회 건축 헌금에 동참케 함 △자립원칙의 유연성 적용 △개척하면서 후임 목회자 세우기(교회 개척, 예배당 건축, 현지인 이양 목표 설정) △현지 목회자의 성품, 소명, 사역 열매 검증 △시골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우도록 격려 △이양 이후도 국내 거주 몽골인을 위한 다문화 사역 지속

2) 선교지 예배당 건축을 위한 제언(9가지):

①전략적 대도시 도심지에 교회 개척 필요 ②건축비가 많이 드는 도심지 건축의 경우 외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③재정 자립을 위해 선교사 의존적 교회에서 벗어나도록 현지 교인들에게 헌금을 가르침 ④현지 교인들이 힘을 다해 예배당 건축 헌금에 참여하게 함 ⑤자속자립을 위한 성당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교회 리더십을 견고히 세울 것 ⑥한시적으로 현지교회 목회자 생활비를 도울 것 ⑦온도 수년 전부터 이양을 전제로 현지 목회자와 동역함 ⑧교회 건물이 아니라, 신실한 목회자 세우기에 전심전력 다하기

(허 선교사는 8.5년간 1개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를 재생산하는 교회를 키웠다.) ⑨교회 개척, 예배당 건축, 현지인 이양 3단계를 염두에 둬

3) 하석구 선교사의 사역 평가: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은 시골에 교회를 개척하지만, 베다니교회는 한국교회의 지원으로 도시 중앙에서 자립교회로 성장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실한 현지인 목회자(제자)를 세우는 일이다. 베다니교회는 선교를 재생산하는 모델교회가 되었고, 자립선교 원리를 유연성 있게 적용한 모델이 되었다.

2. 인도네시아 교회 개척 갈리만탄 정글 오지 예배당 건축 (송광욱 선교사)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로, 헌법상 6개 종교(이슬람, 가톨릭, 개신교, 불교, 힌두교, 유교)만 허용된다. 인도네시아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다.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서구 식민 세력과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선교 활동 전개했기에 복음 전파에 적지 않은 제약 받았다.

송광욱 선교사는 장로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현재까지 총회 파송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안대학원대학교 타문화권 선교 박사(Ph.D) 수료생이다.



인도네시아 송광욱 선교사의 활동 모습

1) 갈리만탄 본띠아낙 임마누엘교회 소개와 예배당 건축: 현지 신학교를 졸업한 아스나트 여전도사(후에 목사안수)는 무교회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해 24개 교회를 건축했다. 그중 23개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워졌다. 임마누엘교회는 모(母) 교회로서 인근 지역 교회 개척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 사명을 감당했다.

2) 송광욱 선교사의 정글 오지마을에 교회 개척 및 예배당 건축 매뉴얼(p. 97):

① 선교사가 예배당 건축을 주도하면 안 된다. ②현지 교인들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자를 파송하여 1년간 전도하게 한다. ④ 현지교회에 예배당 건축 부지를 마련할 때까지 기다린다. ⑤현지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한 이후, 부족분을 지원한다. ⑥ 건축된 교회가 오지에 다른 교회를 세우도록 격려한다. ⑦현지 교인들 스스로 목회자 사례비를 감당하도록 자립 의식을 고취시킨다. ⑧선교사는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현지교회가 자립하도록 교육한다. ⑨작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인들이 늘어나면 큰 예배당을 건축하게 한다. ⑩ 현지교회가 유치원이나 교회부설 학교를 설립하도록 권면한다.

3) 선교지 예배당 건축을 위한 11가지 제언(송광욱 선교사의 32년간 예배당 건

축 경험): 신학생을 정글 오지 마을에 보내 1년간 전도 실습을 시키라. 신학교 졸업생을 교회로 건축할 마을에 파송하여 교회를 조직하라. 현지교회가 예배당 부지를 준비한 후, 건축 지원을 시작하라. 예배당 건축 지원 시, 가급적 건축 자재만을 지원하라. 현지교회 사역자를 통해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라. 예배당이 세워질 지역에 따라 한국교회와 현지교회의 부담 비율을 정하라. 신도시 외곽 및 정글 오지에 교회 개척과 예배당을 시도하라. 학교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 내에 학교를 시작하라. 예배당 건축 후에 한국교회 후원자들을 헌당예배에 초청하라. 예배당 건축 후에 선교사는 현지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지 마라. 후원으로 건축된 현지교회가 다른 지역에서 현지교회를 시도하도록 도전하라.

4) 송광욱 선교사의 사역 평가: 송 선교사는 자카르타 근교 한인열방교회를 개척, 담임하면서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지 서부 갈리만탄(보르네오, 450만 인구) 오지 마을에 교회 개척과 예배당 건축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 교인들 스스로 재정적 책임을 지도록 교육하고 있다. 장기 자립 전략의 하나로 신학교 졸업생들이 '종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오지에서 종교 교사로 일하면서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지 마을 교회 개척과 예배당 건축은 이슬람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 틈새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송광욱 선교사는 현지인이 주도로 전도하며(자전), 교회를 개척하며, 예배당을 세워 나가고, 책임을 지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후원하며(자립), 인도네시아 전역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다." (p. 102) <계속>

배안호 영국 선교사(Peterahbae@gmail.com)

이란 성도 “더 큰 파괴로 이어지지 않고, 희망과 평화 되찾는 전환점이길”

이란 지하교회, 세계교회와 성도들에게 긴급 기도 요청

최근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결렬되고,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주요 지역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 몇 달간 이란 내부에서 발생한 시위와 정부의 무력 진압 이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란 지하교회가 전 세계교회와 성도들에게 긴급 기도를 요청해 왔다.

수주간 이란과 미국 간의 외교적 회담이 종결된 후,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현지 시각) 테헤란, 이스파한, 쿰(Qom) 지역을 공습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혁명수비대 주요 지휘관, 고위 관료들도 이번 공습에서 다수 사망했다. 이에 이란은 40일간 국가 예도 기관과 7일간 전국 임시 공휴일을 선포했고, 주요 대도시 시민들에게 안전한 곳

으로 대피할 것으로 권고하는 등 사실상 전시 비상 체제로 운영 중이다. 또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천명하며 이스라엘 본토,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곳곳에 위치한 미군 기지와 동맹국 인프라를 타깃으로 대규모 탄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오프도어의 이란인 현지 파트너는 먼저 ‘저는 전쟁을 찬양하지도 않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 지역의 평범한 가정에 전쟁이 주는 고통을 가깝게 여기지도 않는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란 국민으로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대대로 있는 깊은 자유에 대한 열망 또한 외면할 수 없다”며 “만약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정의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전환점이 된다면, 이 전환점이 더 큰 파괴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존엄과 희망, 평화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무고한 자들의 보호와 지도자들의 자

제, 이란과 이 지역이 두려움 없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기도한다”며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혼란에서 평화를 가져다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국오피도어는 “이러한 긴장 고조 상황을 고려하여 이란, 팔레스타인 자치령,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의 국민, 특히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권력자들이 지혜와 자제력을 발휘하도록, 모든 시민의 생명과 보호를 위해, 이들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공격받은 모습
희망과 믿음과 빛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우리의 행복이 일상이 되도록

더 깨끗한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 더 투명한 세상을 위해, 한국중부발전이 이끌어 나가는 ESG 경영.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회사가 되겠습니다.

THINK TOMORROW, ESG LEADER!

- 수소 밸류체인 구축 확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발전사 최대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구례, 봉화)
- 해외 운영사업장 발전사 중 1위**
(11개소)
- 아세안국가 전력시장 선점을 위한 TEAM KOMIPO 해외동반진출**
(9년 연속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달성)

美캘리포니아 예비 방해 처벌 강화 법안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예비 방해와 협박 행위 증가에 대응해 교회와 종교시설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샤넌 그로브(Shannon Grove)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SB) 1070은 종교 예비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법은 고의로 종교 예배를 방해할 경우 최대 1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범죄의 심각성이나 조직성, 반복성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이른바 '워블러(wobbler)' 조항을 신설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범죄로 기소될 경우 최대 5,000달러 벌금과 16개월 구치소 수감형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욕설이나 소란, 과도한 소음 등으로 종교 집회를 방해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SB 1070은 또한 사회봉사 명령을 대체 처벌로 도입해 초범의 경우 50~80시간, 재범은 120~160시간의 봉사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 지지 단체인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California Family Council)은 고의적 예비 방해를 억제하기 위해 단계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이 단체의 부대표 그렉 버트(Greg Burt)는 "교회는 정치 집회나 시위 무대가 아니라 가족들이 평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며 "의도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pixabay

법안은 올해 1월 이후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예비 방해 사건 증가 속에서 발의됐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시티교회(Cities Church)에서는 시위대가 예배에 난입해 교회 목사의 이민서관단속국(ICE) 근무를 문제 삼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캘리포니아 칼즈베드 미션교회(The Mission Church)에서는 시위대가 출입구를 막고 고출력 사이렌을 울리며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

이 교회의 부목사 JC 쿠퍼는 최근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반복적인 예비 방해 사례를 증언 했다. 그는 일부 시위자가 신도로 가장해 예배 중

단을 유도하고 적대적 구호를 외쳤으며, 퇴장 조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 밖에서는 확성기와 사이렌을 사용한 시위대가 몰려와 위협적인 구호를 외쳤고, 부활절에도 유사한 방해가 반복돼 어린이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일부 방문객이 교회를 떠났다고 전했다.

쿠퍼 목사는 이러한 사건으로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큰 충격을 받았으며 "목회자이자 네 자녀의 아버지로서, 가족이 예배당 안에서 증오와 차별을 겪는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웨일스 의회, 조력자살 법안 지지 표결... 반대 단체 "취약계층에 재앙"

‘말기 성인(임종) 법안’에 대한 입법 동의안 근소한 차이로 가결

영국 웨일스 의회가 웨스트민스터의 조력자살 법안을 지지하는 표결을 통과시키자 반대 단체들이 실망을 표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24일(이하 현지시간) 웨일스 의회(Senedd)는 킴 리드비터 의원이 발의한 ‘말기 성인(임종) 법안’에 대한 입법 동의안(Legislative Consent Motion)을 근소한 차이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영국 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표결 결과는 찬성 28표, 반대 23표였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향후 웨스트민스터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조력자살이 웨일스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시행될 수 있게 된다.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연합체 케어 나트 킬링(Care Not Killing, 이하 CNK)은 성명을 통해 의회의 이번 결정을 "위험한 동의안 지지"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CNK 최고경영자 고든 맥도널드 박사는 "영국에서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합법화할 경우 말기 환자, 장애인, 임상적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겪는 이들에게 삶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실제적 또는 인식상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오리건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많은 선택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결과라는 연구가 있다고 지적

했다.

맥도널드 박사는 또 현재 법안 초안이 섭식장애나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과 같은 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지, 생을 끝내도록 돕는 장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완화의료 확대와 가족 지원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영국 하원은 지난해 6월 해당 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으나, 법을 제정을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상원에서는 다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히며 강도 높은 검토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수정안 제출로 인해 이번 회기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독교 시민단체 케어(CARE)의 대표 로스 헨드리는 이번 표결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결함이 있는 법안"이라며 실망을 표했다. 그는 "웨일스 의회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원칙적으로 조력자살에 반대했었다"며 "웨일스 국민의 위임 없이 웨스트민스터 법안이 조력자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헨드리는 또 웨일스 내 완화의료, 사회복지, 장애 지원의 공백을 지적하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절망감 때문에 생을 마감하도록 내몰릴 수 있다"며 "조력자살은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의 안전장치로는 이러한 위험을 막을 수 없다"며 조력자살 반대 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권력은 신적 선물인가 위험한 유혹인가”... 테오스 보고서, 성경적 권력관 재조명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되는 가운데, '권력'이라는 동시대의 가장 논쟁적인 개념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새롭게 조명하는 신학 보고서가 발표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싱크탱크 테오스(Theos)가 국제 구호단체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와 협력해 최근 발간한 'A Theology of Power'는 신학자 메들레인 페닝턴(Madeleine Pennington)과 폴 비클리(Paul Bickley)가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성경이 권력을 본질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지혜롭게 관리할 수도 있고 파괴적으로 오용될 수도 있는 '신적 선물'로 제시한다고 분석한다.

군사적 공격, 민족주의적 수사, 그리고 이른바 '규칙 기반 질서'의 약화가 세계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누가 권력을 쥐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Mark Carney)는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가 "강대국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경쟁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감내해야 할 것을 감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고서는 권력에 대한 본능적 불신이 이해할 만 하지만, 그것이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정치 부패, 기업 스캔들, 제도적 인종 차별, 교회 내 성직자 학대 위기 등 권력 남용의 사례가 서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권위를 향한 경계심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많은 이들이 권력을 지배와 강압, 엘리트의 사익과 동일시하는 '의심의 해석학'을 채택하고 있지만, 권력 자체에서 물러나는 태도는 현실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책임을 회피하고 정의를 소홀히 하거나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 또한 노골적인 권력 남용만큼 해로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권력을 필요하면서도 책임이 따

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보다 정교한 신학적 틀을 제안한다. 정치가 아닌 성경에서 논의를 출발하는 점도 특징이다.

성경 첫 책인 창세기에서 권력은 강압이 아닌 창조적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혼돈에서 질서를,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 자체가 관대한 힘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인간에게 맡겨진 '통치' 역시 폭군이 아닌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해석한다.

그러나 권력의 위임은 곧 위험을 동반한다. 에덴의 반역, 초기 인류의 폭력, 바벨의 교만, 이스라엘 왕들의 부패 등 성경은 권력이 관리에서 지배로 변질되는 반복적 실패를 기록한다. 구약 예언자들은 권력 자체보다 우상숭배,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 책임 없는 권력 집중 등 왜곡된 사용을 비판했다.

신약은 권력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장한다. 예수의 권위를 설명하는 헬라이어 '누나미스'와 '엑수시아'는 기적뿐 아니라 신적 권위의 역사 개입을 의미한

다. 동시에 기독교 메시지는 참된 권력이 악함 속에서 드러난다는 역설을 제시한다.

사도 바울이 말한 "악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통념을 뒤집는다. 제국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한 처형 방식이었던 십자가형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결정적 승리의 순간이 됐다는 것이다. 부활 역시 지배가 아니라 희생적 사랑이 역사의 궁극적 합임을 확인하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겸손이 곧 높아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바울이 언급한 '권세'와 '통치'들에 대해서도 영적 존재와 정치적 구조를 모두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 권력 구조는 창조 질서의 일부이지만 하나님 위에 군림할 때 왜곡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권력을 파괴하기보다 그 허위를 '무장 해제'시킨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또한 보고서는 정치적 제도적 삶에서의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신약은 통치와 리더십, 자원의 책

임 있는 사용을 긍정하며, 신자들에게 권위를 존중하고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라고 가르친다고 설명한다.

저자들은 네 가지 원칙도 제시한다.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며, 지도자와 제도는 언제나 부패할 수 있고, 기독교적 리더십은 지배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특징지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변화는 누룩이나 겨자씨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오늘날 상당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제기한다. 박해 속에 살았던 초기 교회와 달리,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문제는 권력을 거부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라는 지적이다.

저자들은 "권력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목적을 위해 주어졌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미경 기자


의성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에서 만들어갑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크리스토퍼 베넥 목사(사진)의 기고글인 '교회 지도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What church leaders get wrong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를 28일(현지시간) 게재했다.



크리스토퍼 베넥 목사는 신기술과 신학 분야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다. 현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퍼스트 마이애미 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The CoCreators Network의 CEO이자 인공지능(AI) 분야의 대표적 성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는 크리스천 트랜스휴머니스트 협회의 창립 의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인공지능을 불안과 무관심이 뒤섞인 태도로 바라본다. 어떤 이들은 AI를 인간성을 약화시키고 목회적 현존을 대체할 비인간적 힘으로 두려워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것을 이메일이나 빔프로젝터, 라이브스트리밍 소프트웨어와 다르지 않은 '종립적 도구'로 치부한다. 두 반응 모두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둘 다 불완전하다.

공통된 오해는 인공지능이 교회 삶의 '주변부'에 머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AI는 이미 인간 일상의 중심부로 들어와 있다. 인공지능은 교회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성도들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

월요일 아침 첫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AI는 이미 한 성도의 세계를 중재하고 있다. 한 십대는 알고리즘이 선별해 준 피드를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사람들은 한 주간의 '형성'을 안고 예배당에 들어온다. 피드가 만들어 낸 불안, 추천 알고리즘이 미묘하게 유도한 선택, 거의 인식하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신뢰해 온 시스템들이 빚어낸 질문이 모든 것을 짊어준 채로 말이다.

이 현실은 첫 번째 오해를 드러낸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AI를 단지 '도구' 문제로 다룬다. 도구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켜 우리가 의도한 일을 더 잘 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점점 인간의 판단 자체를 형성하고 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할지 기술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형성적'이다. 인간을 형성하는 모든 것은 교회의 신학적·목회적 책임 영역에 속한다.

두 번째 오해는 AI가 '중립적'이라는 생각이다. AI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데이터로 훈련되고, 특정 목표를 향해 최적화되며, 경제·정치적 구조 안에서 운영된다. 결국 그 시스템은 훈련 데이터에 담긴 가치관과 편향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AI가 불의를 확대 재생산할 때, 그것은 악의를 품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패턴을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 분별, 책임의 문제는 AI 사용과 분리될 수 없다. 이제 목회적 돌봄에는 '기술적 권위'를 해석하도록 돕는 일이 포함된다.

세 번째 오해는 더 미묘하다. 많은 지도자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친다. AI가 언젠가 목회자를 대체할지 고민하지만, 이미 성도들은 대화형 시스템에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고 있고, 추천 엔진에 의사결정을 맡기고 있으며, 인간의 자해보다 기계가 생성한 요약 을 더 신뢰하고 있다. 문제는 가상의 대체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영향력이다. 이를 의외한다고 해서 교회의 충실성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목회적 책임을 조용히 포기하는 셈이 된다.

이쯤에서 많은 지도자들은 압도감을

느낀다. 충실하게 대응하려면 기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프로그래밍 기술이 아니라, 교회가 오랫동안 길러온 고유한 은사인 집중, 분별, 공감, 도덕적 상상력이다. 목회자는 이미 숫자와 데이터가 말하는 것과 실제 삶이 말하는 것이 다를 때를 경험해 왔다. 효율이 아니라 현존이 필요한 순간을 알고, 최적화가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자리를 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기술을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의 필요성을 더 키운다.

AI가 매개하는 세상에서 인간의 분별은 더 귀해진다. 역사는 이를 분명히 한다. 인쇄술은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쥐여 주며 권위를 재배치했다. 산업화는 시간과 노동, 가정 구조를 재편했다. 디지털 미디어는 정체성과 공동체를 변화시켰다. 그때마다 교회는 공포에 빠지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맡았다.

AI는 더 깊은 도전을 제시한다. 이전 기술이 소통과 노동 방식을 바꾸었다면, AI는 인간의 '판단'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정보 정렬, 신뢰도 평가, 행동 추천—AI는 판단 과정에 참여한다. 이는 단순히 행동

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위 주체성'을 건드린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AI는 이해를 흉내 내지만 도덕적 자각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함께 신뢰와 책임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실천적 결론은 분명하다. 교회가 AI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용하고 있다. 설교 준비, 소통, 행정, 교육은 점점 AI 매개 과정을 거친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AI가 '중요'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권위'가 될 것인가?

AI는 작업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사람 할 수는 없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거나, 회개, 용서하거나, 소망할 수 없다. 슬픔 속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인간적이며, 동시에 신학적이다.

교회의 소명은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현존이 무엇인지' 다시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태도는 바뀐다. 문제는 두려움이나 수용이냐가 아니다. 분별이다. "교회가 AI를 도입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기계에 의해 지식과 신뢰, 관계가 매개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목양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 신실하다.

인공지능은 교회에 대한 기술적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제자도의 순간이다. 성도

들은 이미 속도는 보강하고 지혜는 무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확신은 강조하고 겸손은 약화시키는 문화 속에 있다. 편익은 강화하고 관계는 축소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교회의 응답은 기술을 거부하는 것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해석하는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으며, 무엇을 결코 대체해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는 늘 인간이 측정 가능한 산출물의 총합 이상임을 가르쳐 왔다. 예측 모델과 확률 시스템의 시대에, 이 메시지는 더욱 절박해졌다. AI는 패턴을 모델링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질 수 없다. 언어를 생성할 수 있지만 자비를 베풀 수 없다. 대화를 모방할 수 있지만 언약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기술적 숙련도도, 문화적 도피도 아니다. 그것은 목회적 명료성이다.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되 인간의 분별, 관계적 돌봄, 신학적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이끄는 일이다. 미래의 사역은 AI가 얼마나 더 똑똑해지는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교회가 '인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기억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최승연 기자

유럽의 진짜 위협은 이주인가, 민족주의인가: 공포의 정치와 현실 사이에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 인터내셔널(CDI)은 제프 파운틴 작가(사진)의 기고글인 '유럽에 더 큰 위협은 무엇인가: 이주인가, 민족주의인가?'(What is the bigger threat to Europe: migration or nationalism?)를 최근 게재했다.

제프 파운틴 작가는 슈만 유럽 연구 센터(Schuman Centre for European Studies)의 창립자이며 1990년부터 YWAM 유럽의 이사로 재직하며,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변화된 정치 환경에서 활동해왔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유럽은 돌이킬 수 없는 문명적 쇠퇴 속에서 문화적으로 텅 비어가고 있으며, 무슬림 이주민들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일부 영향력 있는 목소리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 서사에 따르면, 유럽의 몰락은 인구학적·종교적 변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주와 기독교 문명의 쇠퇴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가? 과연 이주가 유럽 안정의 가장 심각한 위협인가? 아니면 민족주의의 신뢰를 내 부에서 잠식하는 세력이 더 큰 문제인가?

많은 사람들은 유럽으로 오는 이주민 대다수가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유럽에 도착하는 이주민의 56%는 기독교인이다. 그 중 상당수는 유럽 내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 온 사람들이다. 무슬림은 전체 이주민의 18%를 차지하지만, 유럽 전체 인구에서 무슬림 비율은 약 7%에 불과하다.

홍미롭게도, 탈기독교화된 유럽에 기독교가 재유입되고 새롭게 살아가는 주요 경로 중 하나가 바로 이주다.

한때 텅 비어가던 교회들은 이제 다국어 예배와 활기찬 찬양, 강한 기도 공동체로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활력은 주로 이주민 공동체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종교적 유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이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 일부 지역, 동유럽 출신 기독교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아프리카 및 중동 출신 기독교인들이 감소하던 교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무슬림 인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다. 이는 포퓰리즘적 공포 정치의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비율은 8-9% 수준이다. 장기적 인구 전망에서도 무슬림은 여전히 소수 집단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법체계는 세속적이고 헌법에 기반하며 인권 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영국에는 일부 이슬람 중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는 영국 법을 대체하지 않는다.

물론 통합 문제, 사회적 분리, 종교적 극단주의 등의 도전은 존재하며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등 상당한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들은 여전히 세계

에서 가장 안정적 사회 중 하나다. 높은 생활수준, 탄탄한 복지제도, 견고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사양 건네에서는 종종 유럽이 쇠퇴하고 있고 미국은 자유와 번영의 보루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여러 지표를 보면 서유럽 국가들은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의료 접근성, 사회 이동성, 소득 불평등, 일과 삶의 균형, 투명성, 민주주의, 언론 자유, 인간개발지수 등에서 미국을 앞서는 경우가 많다.

유럽인들은 더 오래 살고, 의료 파산 위험이 낮으며, 더 높은 행복도를 보이고, 노동 보호가 강하며, 폭력 범죄율도 낮다. 특히 무슬림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국가에서도 이러한 안정성과 번영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다양성이 곧 사회 붕괴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의문을 던진다.

반면 미국은 기대수명 감소, 극심한 불평등, 대규모 수감 문제, 취약한 사회 안전망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무슬림 인구 규모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더 구조적인

위협은 극우 포퓰리즘이다. 이주민이나 종교 소수자와 달리, 극우는 권력을 직접적으로 추구한다.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유럽 여러 지역에서 포퓰리스트들은 사법 독립성을 공격하고, 언론 자유를 훼손하며, 선거 정당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정치적 반대자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해 왔다. 그들은 '기독교 유럽'을 수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존엄, 진리, 약자 보호, 정의, 자비, 겸손과 같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현실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 역시 종종 무시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도덕적 나침반이 아니라 문화적 배지로 전락한다.

유럽의 가장 큰 위기들은 종교적 다양성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을 절대화하고 다원주의를 거부한 민족주의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극우 운동은 다양성을 침략으로, 공존을 굴복으로 묘사하며 끊임없는 문화적 공포를 조장한다.

그 결과 무슬림에 대한 공포는 실제 숫자나 객관적 영향력을 훨씬 초과한다. 이

간극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럽이 직면한 진짜 문제들인 고령화, 경제적 불평등, 기후 위기, 권위주의 국가들의 지정학적 압력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유럽은 무슬림에 의해 압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지역에서 이주민을 통해 기독교가 새롭게 살아나고 있다.

최근 한 토론에서 우크라이나의 두 교수와 함께 20세기 교회 지도자 안드레이 셉티츠키(Andrei Sheptytsky)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민족주의가 다른 민족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한 민족을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며, "국가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불의를 용인할 때 파괴적으로 변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과 독립 투쟁의 상황에서 어떤 국가적 대의도 살인이나 억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분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최승연 기자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광역접근성 우수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

트럼프 “이란 전투 작전 계속된다” 이란의 핵시설·지도부 타격 강조

트루스소셜 연설 통해 군사작전 지속 공식화
이란 지도층 사망 주장하며 목표 달성까지 공세 유지 방침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이란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군사 작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투 작전이 현재 전력을 동원해 진행 중이며, 설정한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약 6분 분량의 연설을 통해 “이란에 대한 전투 작전은 현재 전력을 다해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작전이 일시적인 군사 대응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군사 행동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매우 강력한 목표를 갖고 있다”며 “그들은 2주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해, 외교적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군사 행동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번 이란 공격과 관련해 구체적인 작전 목표나 향후 군사 행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협상 결렬 이후 이란 공격 개시…핵 시설과 군사 인프라 집중 타격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전날 새벽 이스라엘과 협력해 이란 공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초기 이란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역할을 나눠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스라엘은 이란 고위 정치군사 지도부를 겨냥한 작전을 수행했고, 미국은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과 주요 군사 인프라를 대상으로 정밀 타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 권력 핵심 인사들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이란 권력 구조와 군 지휘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하메네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어젯밤 그의 죽음은 발표되자 이란 전역에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환호와 축하의 목소리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이란 공격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이란 내부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란 군 지휘부 붕괴”·지도층 48명 사망 주장하며 작전 지속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란 공격으로 이란 군 지휘 체계가 크게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 지휘부 전체가 사라졌다”며 이란 군 지도부 상당수가 제거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휘부 중 상당수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항복을 원하고 있으며, 수천 명이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고 말해 이란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번 군사 작전으로 이란 지도층 인사 48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이번 이란 공격이 단순한 제한적 군사 행동이 아니라 이란 권력 핵심과 군사 지휘 구조를 직접 겨냥한 작전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투 작전이 현재 진행 중이며, 설정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이란 공격과 군사 작전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은혜 기자

이란 공습 북한 반응 발표 김정은 핵 전략 변화 가능성에 국제사회 주목

북한,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 강력 규탄 담화 발표
전문가들 “핵 억지력 강화 또는 북미 대화 변수 될 수 있다” 분석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북한이 공식 담화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전략과 향후 대외 대응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이란 지도부와 군사 시설을 겨냥한 작전을 수행한 상황이 북한의 안보 인식과 핵 정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1일 일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인된 국제법 위에 국내법을 올려놓고 저들의 이기적이며 패관적인 야욕 달성을 위해서라면 군사력 남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화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진행된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발표됐다. 다만 북한은 담화에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북한, 미국 비판 속 대응 수위 조절…북미 관계 항방 변수로 부상

미국은 최근 이란을 포함해 해외에서 군사 및 정보 작전을 수행하며 지도부와 군사 인프라를 겨냥한 대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정보력과 군사 작전 수행 능력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이란 공습 사례, 북한 핵 억지력 판단에 영향 가능성”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습 사례가 북한의 군사 및 핵 전략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장기간 축적한 정보 능력과 정밀 타격 역량을 실제 군사 작전에 적용한 점이 북한의 대응 전략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부를 겨냥해 축적된 정보와 정밀 작전을 실행한 사례는 북한 지도부에도 중요한 사례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정보 수집 능력과 군사 작전 방식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북한이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운용 전략을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임 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지난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한 모습. 사진은 조선중앙TV 캡처. ©뉴스스

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단순한 억지 수단이나 실제 군사 전략의 일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 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신뢰하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군사 작전 사례가 북한의 핵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미국 비판 속 대응 수위 조절…북미 관계 항방 변수로 부상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공식 담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이 이러한 해석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의 긴장 상황 속에서도 향후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 간 대화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양 교수는 “북미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핵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며, 북한의 핵 정책과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북한의 핵 정책 방향과 북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박용국 기자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에 사법 독립 논란

필리버스터 충돌 속 잇따라 가결
대법원 구조·헌법소원 절차·형사 책임 규정 동시 개편

국회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사법제도 전반의 구조 변화가 현실화됐다. 국회는 지난 26~28일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의결했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강하게 대치했다.

이번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새로 마련되고,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됐으며, 대법관 정원이 대폭 확대되는 등 사법제도의 핵심 구조가 동시에 개편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법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입법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법 왜곡죄 신설…판사검사 고의적 법령 왜곡 시 형사 처벌 가능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법 왜곡죄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서 판사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을 배제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처벌 수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5년으로 명시됐다.

개정안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되며, 과거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형사 사건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수정이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법 해석과 판단 과정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재판 과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들이 형사 고발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

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의 재판 독립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27일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재판소원제가 도입됐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심사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재판 절차가 추가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권한 범위와 역할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대법관 정원 26명으로 확대…사법부 구조 변화 논쟁 이어져

28일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관 정원이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됐다. 증원은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되며, 이후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도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사법 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게 됐다. 특히 대법관 정원 확대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구조와 인적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사법제도의 핵심 구조를 단기간에 변경한 점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법부 구성과 재판 절차에 대한 입법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 분립 원칙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박용국 기자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신 존재 믿는다” 48%... 한국인 종교·영성 인식 현주소

한국리서치, ‘2025 종교인식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성인 절반가량이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갖지 않은 이들 가운데서도 일정 수준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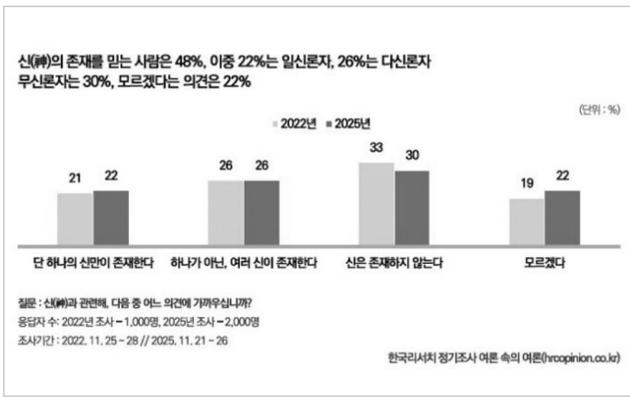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2025 종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8%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2%는 일신론적 신앙을, 26%는 여러 신 또는 다양한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응답은 30%,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22%였다.

신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의 신 존재 인정 비율은 55%로 남성(40%)보다 높았으며, 무신론 비율은 남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신을 믿는 비율이 과반을 넘은 반면, 18~29세에서는 신을 믿는 비율이 37%에 그치고 무신론 응답이 가장 높아 세대 간 인식 격차가 확인됐다.

종교 유무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종교가 있는 응답자의 69%는 신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무종교층에서는 27%만이 신을 믿는다고 답했다. 종교별로는 개신교 신자의 경우 일신론 응답이 가장 높았고, 불교 신자 가운데서는 다양한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신을 믿는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에서도 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엇갈렸다. ‘신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49%로 절반 수준이었고, 37%는 ‘신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중년층에서는 신의 비개입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식도 신앙 여부와는 별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고 답했으며, 사후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비율도 40% 수준이었다. 귀신이나 천사·악마 등 초자연적 존재를 믿는다는 응답 역시 30%대 중반을 기록했다.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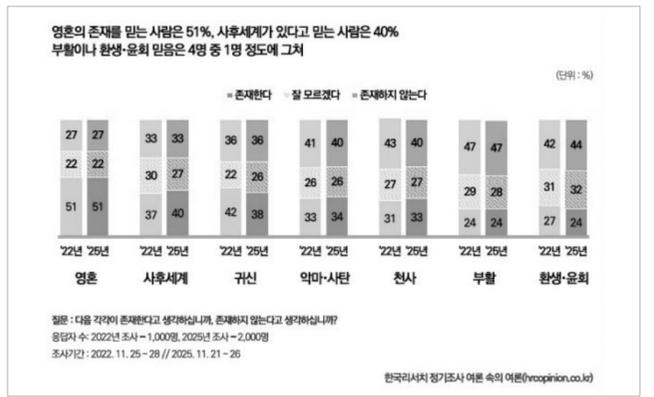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환생이나 율회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한 동의는 20%대에 머물렀다.

한국리서치는 “개신교 신자는 유일신, 천사, 악마, 부활 등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기도 응답과 치유 경험을 한 사람이 적지 않다. 불교 신자는 다신론과 환생·율회를 믿으면서도 점술,

길일 택일, 풍수 등 민간신앙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천주교 신자는 두 종교의 중간적 특성을 보인다. 여성이 남성보다 초자연적 존재 믿음, 민간신앙 의존, 초자연적 경험 모두에서 일관되게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점도 눈에 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종교인의 특성도 동일하지 않



©한국리서치

다. 무종교인 4명 중 1명 정도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과반은 기적과 인과응보를 믿으며, 점술에 의존하고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10명 중 4~5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18~49세 무교 여성은 영혼, 귀신, 환생·율회는 비교적 수용적이지

만 천사, 악마, 부활 같은 기독교 요소를 거부하는 선택적 믿음을 보인다”며 “무종교 인구의 증가는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 종교의 틀을 벗어난 개인적 영성으로의 전환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개신교인 5명 중 1명, 점·사주·운세 등 민간신앙 의존 경험

길일 택일·풍수지리도 일부 경험

최근 발표된 ‘2025년 종교인식조사(한국리서치) 결과, 개신교 신자 중에서도 일부는 전통적 민간신앙 형태에 의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0%는 점·사주·운세(타로, 토정비결, 관상, 손금 포함) 등 민간신앙에 의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중요한 일의 날짜를 정할 때 길일을 택한 경험도 36%에 달했으며, 풍수지리(집터·묘자리·인테리어 등)를 활용한 경험도 32%로 조사됐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 신자들의 민간신앙 의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불교 신자의 64%가 점·사주·운세에 의존한 경험이 있으며, 길일 택일(65%)과 풍수지리(52%)도 절반 이상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 신자에서도 10명 중 3~4명 정도가 민간신앙 의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개신교 신자 중

에서도 약 20% 정도가 점·사주·운세, 길일, 풍수지리 등 민간신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이다.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며 우상숭배를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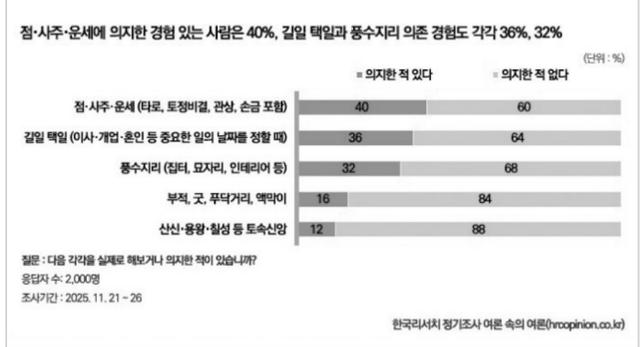
하고 있다. 한국리서치는 “일상에 걸친 경험을 물었기 때문에, 개신교·천주교 신자

가 되기 전에 이러한 민간신앙을 경험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개신교·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민간신앙·토속신앙에 의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는 종교 유무에 따른 경험 차이도 크지 않다는 점은, 민간신앙이 한

국인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풀이했다.

전통적 민간신앙 요소인 부처·국·푸닥거리·액막이(16%), 산신·용왕·칠성 등 토속신앙(12%)에 의존한 경험도 응답자 다수에게서 나타났다.

김진영 기자



©한국리서치

한국교회 신뢰도 19%... ‘신뢰하지 않는다’ 75.4%

기윤실 ‘2026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4%로 집계됐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지형은, 공동대표 정병오·신동식·이상민, 이하 기윤실)은 최근 서울 성동구 소재 성락성결교회에서 ‘2026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지앤컴리서치가 지난 1월 5일부터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 19% 중 ‘매우 신뢰한다’는 4.2%, ‘약간 신뢰한다’는 14.8%였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75.4% 중에서 ‘별

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4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2.4%였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가 24%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22.1%, ‘불투명한 재정 운영’이 18.9%로 뒤를 이었다.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이념 성향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47.1%가 한국교회를 ‘극우’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중도’라는 응답은 30.1%, ‘극좌’는 8.3%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5%였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평가는 56%였다.

기윤실은 지난 2008년을 시작으로 올



기윤실 이사장인 지형은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해까지 총 8차례 걸쳐 이 같은 조사를 진행했다. 기윤실은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도와 위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바로 서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 통합과 공공성 회복에 기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2026 제1차 에큐포럼 개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공간이제에서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본 미국의 약탈무역과 새로운 군사전략’을 주제로 2026 제1차 에큐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미국의 달러 패권 동요와 약탈무역, 군사전략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 강원돈 박사(한신대 은퇴 교수)는 “미국이 달러 패권의 흔들림, 국내 가치생산 기반 붕괴, 군사전략 재편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금융·통

상안보가 결합된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정의를 ‘바른 관계, 평화를 정의의 열매로 설명하며 “미국 전략을 평가할 때 해당 국가의 ‘작은 사람들의 자리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개방경제 구조, 달러 체제 편입, 높은 대미 안보 의존과 대중 경제 의존이 교차하는 조건 속에서 미국 전략이 응축돼 작동하는 모델 국가”라고 진단하며 “관계 압박과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이 경제·안보 교환 논리에 따른 패기지로 설계됐으며, 이른바 ‘마라라고

달러 플랜’이 이를 체계화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장기적 비핵화 구상 등을 제시하며, 통화·무역·군사외교 전반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관세 합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토론자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언급하며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지동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 ONE OF NOT MANY. GENÈVE

3·1운동, 한민족의 대한민국을 위한 결단(1)

1. 3·1운동과 기념일의 의미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이나 추석과 같은 전통적인 명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3.1절, 현충일,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3.1절, 현충일, 광복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관련된 날입니다. 3.1절은 대한민국의 씨를 뿌린 날이,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이며, 현충일은 대한민국의 수호의 날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현충일대신 6.25를 기념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전통적인 명절은 유교의 축제입니다. 이 때 한국 사람들은 유교신자가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념일은 기독교의 날입니다. 한국의 많은 종교 가운데서 이 날을 기념하는 종교는 기독교 밖에 없습니다. 유교는 위의 절기와 관계가 없고, 불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 세 기념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많은 기도회를 갖습니다.

국가마다 그 국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신라와 고려는 불교였고, 조선은 유교였으며, 대한민국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1919년 3.1운동에도, 1945년에서 48년에 이르는 건국과정에도 1950년에서 1953년에 이르는 한국전쟁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우리 기독교만큼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3.1절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1절은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많은 계층이 모여 일으킨 운동입니다. 여기에는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이 관계가 없고, 지역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2천만 모든 국민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운동은 전 민족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세력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1운동에서 우리 기독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2.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큰 과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조선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중국의 중화질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중국이 유럽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것은 실수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은 과거 중국과 같거나 못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종교개혁과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당할 수 없었고, 조선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선은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조선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선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당시 조선에는 다섯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

니다. 첫째는 유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조선의 주역이자 중국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군을 조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일본을 모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이 먼저 서구화되었으니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는 새로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를 따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중에는 공산주의를 따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미국을 따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미국 선교사를 통해 미국을 알고 우리도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항기 우리나라는 이 다섯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식으로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첫째, 중국을 의지하고 조선왕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교신자들이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기면 다시 세계가 올바른 질서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일으킨 것이 바로 의병운동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인석입니다. 그는 중국중심의 세계를 복원하려고 했습니다.

둘째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은 모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교를 중심으로하는 선진세계는 끝났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후진개척에서 천자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일본식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본식으로 나라를 바꾸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꼴지 나라였는데,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대표가 바로 김옥균, 송병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넷째, 러시아식을 따르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종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도 러시아 황제처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미국식 국가를 만들려는 사람들입니다. 1882년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많은 미국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를 소개했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3. 한국 기독교인들의 선택: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 국가

여러분! 개항기 조선에는 여러 길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의 길, 중국의 길, 일본의 길, 러시아의 길, 그리고 미국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민족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미국의 길입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미국식 정치제도를 택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



박명수(서울신대 명예교수,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교회갱신위원장)가 강연하고 있다. ©국가연합기도

라를 만들었습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은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만큼 민주화된 국가가 없습니다. 우리만큼 경제가 발전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만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선택이 필자 1등과 만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세계 꼴지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개방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갑자기 세계 1등 국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제 남북전쟁을 끝내고 세계무대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이 아니라 태평양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만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세계에서 이제 막 떠오르는 나라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 자체는 한반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터였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수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과 관계를 맺은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입니다. 특히 무디의 부흥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로부터 미국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새로운 국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왕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나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가장 먼저 쫓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1904년 갑오에

서 “한 나라의 강함은 영토에 있는 것도, 인구에 있는 것도, 역사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제도에 있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제도를 택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승만의 꿈은 이승만만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꿈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 오히려 이 꿈은 더욱 강해져갔습니다. 그래서 1910년 미주에서 발행하는 신한민보를 보면 대한제국은 여차피 망할 나라이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 새나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하는 순간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1917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당시 세계는 제1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족자결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민족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전자는 소위 프로렐타리아 공화국입니다. 후자는 소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에게는 두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볼셰비키 혁명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따를 것인지입니다.

1918년 11월 11일 제 1차 세계대전은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주도한 것이 미국의 윌슨입니다. 윌슨이 이겼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식 민주주의가 되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레닌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윌슨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3.1운동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중심역할을 했습니다.

4. 3.1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

여러분! 누가 3.1운동의 주역입니까? 3.1운동은 3가지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는 준비단계로 주로 해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일먼저 시작

한 것은 미국의 교포들입니다. 이들은 독일이 항복하자마자 11월 말에 윌슨에게 전보를 보내 전쟁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도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2.8독립운동입니다. 이것이 상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상해 한인교회의 신자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건의문을 써서 우리는 독립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윌슨에게 우리의 독립을 청원하고, 우리도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국내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해서 통치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는 것인데, 교포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본의 통치를 받은 국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들이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의 기독교인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을 말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도교는 손병희가 교주이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천도교의 돈으로 기미독립선언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기독교의 사람과 천도교의 재정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3.1운동 백주년 당시 총독부가 만든 3.1운동 계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 140명입니다. 그 중 천도교계열의 인사가 50명, 기독교계열의 인사가 90명입니다. 이것으로 기독교인의 참여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해외에서 다시 확산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상해에는 이미 상해한인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리교 목사 현순입니다. 그는 국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주역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29명중 기독교인 11명, 대종교 7명).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 임시 대통령, 안창호 내무부장, 김규식 외무부장 등입니다. 여기에 대종교 사람들이 가담했습니다. 그가 이시영입니다.

3.1운동은 준비단계에서는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였고, 국내의 실행단계에서는 기독교와 천도교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단계인 상해 임시정부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대종교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3.1운동의 주역은 기독교인들입니다.

※ 이 글은 박명수 교수가 3.1절 제107주년이었던 1일, 금관교회에서 열린 '국가'를 위한 3·1절 금식기도성회'에서 한 특강의 전문입니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일기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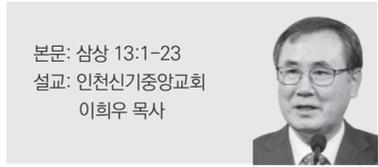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캠프 선비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재단(원기금)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사무엘서 14. '사울의 불순종'



본문: 삼상 13:1-23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 트만 하고 와서는/ 말린 숙제 못하고 끽대더니/ 그만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 시끄러운 찻집에 홀로 앉아서/ 메모지에 낙서만 하고 있다가/ 시험지를 받아드니 아는 게 없어/ 포르르 연필만 굴리고 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는 90년대 콜시스터스의 노래, 우리 존재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준다.

“물라서 저지르는 잘못”과 “알면서도 저지르는 잘못”이 있는데 본문에 “알면서도 잘못을 범한 불순종의 사람이 등장한다. 사울 왕이다. 급상승하던 사울 왕이 급전직하(急轉直下)로 추락한다. 화려한 등장은 잠깐일 뿐, 사울은 곧바로 긴 실패의 나라로 떨어진 것이다.

◆알면서도 저지른 잘못

사도행전에 사울의 집권을 40년이라고 했지만 그 40년은 모세부터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연대일 수 있기에 정확히 얼마동안 집권했는지는 가능하기 어렵다. 다만 청년 시절에 기름 부음 받고, 아들 요나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손자까지 봤다면 꽤 오랜 세월을 왕위에 있었던 셈이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십 세라”(1절)라 한 것도 히브리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마저 나오지 않고, 표준새번역에서는 30세라 했다. 성경은 사울의 나이나 재임기간보다 사울의 실패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울의 실패는 ‘알면서도 저지른 잘못’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했지만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의 모습이 형편없었다면 암몬과의 전쟁 때도 군사력은 형편없었을 것이다. 군사 삼천 명, 그마저 오합지졸(烏合之卒)일 뿐이었다.

고대 전투에서 전쟁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신약을 물음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군사들은 흠악하자 다급한 마음에 사울은 그만 자기가 제사를 주관한다(8-9절).

그런데 묘하게도 사울이 번제(a burnt offering)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난다(10절).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상황을 설명한다(11-12절).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지만 사무엘은 단호하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명령된 행동이라 한다. 아무리 왕이라도 권한 제한이 있는데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를 범했다는 것이다.

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조급함이 죄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짜 조급해야 할 것은 일의 성취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책임추궁이 무섭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23조에 의하면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대통령은 마치 적용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사무엘은 즉각 탄핵(彈劾)을 선언한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은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14절). 단 한 번의 실수였

지만 왕 노릇이 끝났다는 심판이며, 다른 사람을 찾아 왕위에 세운다는 가혹한 선언이다. 알면서도 저지른 불순종이었기 때문이다.

◆변명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사무엘이 약속대로 7일 안에 길갈에 도착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백성들도 동요했다. 그래서 부득불 대신 드린 제사, 왕의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越權)이자 직권남용(職權濫用)이든 부득이한 긴급조치(緊急措置)였다는 것,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다. 마치 시험하기 위해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다. 혹시 그게 사실이라면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국난이 일어난 때였기 때문이다. 왜 순진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함정을 만들어 빠져게 하고, 뒤에서 흔드느냐? 그리고 약속보다 늦게 온 것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다. 그뿐인가? 단 한 번의 실수인데 바로 탄핵은 너무 하지 않나?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엄격하고 가혹하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바로 폐위를 선언한다.

개인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1절을 보면 이 일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 년 만에 일어났다고 했다. 만일 사도행전의 언급대로 사울이 40년을 집권했다면 그는 사무엘의 심판 선고 후로도 38년을 더 집권했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은 사울에게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울 왕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만일 회개했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울은 회개는커녕 15장에 보면 아말렉 족속과

그 소유를 모두 진멸하라는 명령을 또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숨긴다. 알면서도 잘못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사건도 역시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좋은 것을 자기가 챙기려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두 사건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사울의 삶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실패한 불순종 때문이다. 다음 왕인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짓는다. 간음하고 살인까지 교묘한 사람, 당연히 탄핵받고, 구속감이지만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사울도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합리화하기보다 회개했다면 최소한 불순종의 대명사로 낙인찍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사라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무엘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있는 적들 중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이라는 강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병력이 비교가 안 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육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이 많더라”(5절).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병거가 3만이라 했다. 병거는 오늘날의 전차, 탱크 정도가 아니다. 그때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교체되던 시기였기에 당시 철기문명은 최첨단 무기였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정규군은 고작 삼천 명, 그것도 민병대 수준이다.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7절). 백성들은 겁을 먹고 숲속에, 바위틈에 숨었다. 그것도 요단 강 건너편으로 달아나고 남

은 군사는 겨우 6백 명기량(15절), 블레셋은 세 방향으로 특공대를 보내 조직적으로 공격하는데 무기도 상대가 안 된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22절). 그들은 그저 농기구를 들고 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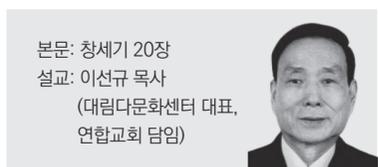
그런데도 싸움을 이만큼 이끌었다며 사울이 빼기만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에베네셀(Ebenezer)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생각해봐라. 언제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이긴 적 있나? 암몬과의 싸움도 군사력 때문에 이긴 게 아니지 않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11:6),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일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

문제는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다. 다급하다고 자기 생각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 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어야 했다는 말이다.

“별것 아니라, ‘별문제 없을 거야’” 혹시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영혼의 문을 열 어주면 사단이 밀고 들어온다. 뒤늦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런데 사울 왕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다. 끝없이 자기합리화만 한다.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시절처럼 신앙생활이 위축되면 안 된다.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자세도 안 된다. 하나님은 아무리 거센 격랑이 일어나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그 어떤 폭풍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황을 핑계 대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소돔성과 폼페이가 보여주는 교훈



본문: 창세기 20장
설교: 이선규 목사 (대림대문화센터 대표, 연합교회 담임)

창세기는 노아 시대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기록한다. 이 두 사건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지닌다. 성경은 단순한 재난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로서 이 사건들을 제시한다.

지리학적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했던 지역은 지진과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은 곳으로 추정된다. 갈릴리 호수 역시 화산 활동과 지각 변

동의 결과로 형성되었다는 학설이 있다. 헬몬산에서 요단강 남쪽 사해에 이르는 지역에는 오늘날까지도 분화구와 지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지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폼페이의 멸망과 인간의 일상

이탈리아 나폴리만의 베수비오 화산과 폼페이 유적은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한다. 폼페이는 약 1500년 동안 화산재에 묻혀 있다가 발굴되었고, 당시 사람들의 일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목욕을 하던 사람, 식사를 하던 사람, 일상생활을 하던 이들이 화산재에 덮여 멸망한 모습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폼페이는 비옥한 평야를 배경으로 번성한 항구 도시였다. 약 500년 동안 번영을 누렸지만,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로 하루아침에 전부가 매몰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재앙의 조짐을 감지하고 피신했으나, 대부분은 이를 준비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유적지에는 당시의 세속적이고 향락적인 문화의 흔적도 남아 있다. 변영 속에서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진 사건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보여준다. 성경은 홍수 심판 당시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재앙을 맞았다고 기록한다. 인간은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깨어 준비할 것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회복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한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딸로, 이복누이에 해당한다(창 20:12). 그러나 사리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은 분명

한 잘못이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렸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창세기 12장에서도 유사한 실수를 범했다. 이는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함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한 부자 청년에게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이 곧 온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브라함은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다. 그의 위대함은 실수가 없었다는 데 있지 않고,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섰다는 데 있다. 에베소서 6장 9절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세우시고, 잘못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을 허락하신다.

◆결론: 준비된 삶의 요청

아브라함은 신앙과 열심이 있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다. 인간은 누구나 약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약점은 때로 시험의 통로가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이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심판 사건은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된 삶과 깨어 있는 신앙을 촉구하기 위한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역시 언제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기억하며,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30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상품 및 구입문의: 080-082-1234 (수신자 부담)

·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베타메타딘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어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사순절 기간을 영적 훈련의 장으로



김창환 목사
서울 강서교회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Lent)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 Lang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Lenz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 명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년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한다.

이는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이다. 한편 40이란 수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시, 40일간 사나산에서의 모세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한다. 이에 고난 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구속을 위해 수난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재 각성하고자 비교적 긴 40일간의 절제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다.

성경에 숫자 40을 자주 볼 수 있다. 심판이나 시험과 관련해 40이라는 수가 많이 등장하기에 여러 학자들이 그 숫자를 "근신" 및 "시험"의 숫자로 이해한다. 40이 온전히 상징적으로 쓰였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 안에서 문자 그대로의 뜻을 지니고 있다. 40일은 그야말로 40일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 같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 번 반복되면서 시험, 준비, 심판, 변화, 새로운 시작과 깊은 관련이 있다(예: 노아 홍수, 40일 금식, 이스라엘 광야 방황, 시험 기간, 사순절 등등).

●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경건 일기 쓰기**
목회자는 교인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할

말씀을 준비하여 제시해 준다. 교인들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제시된 본문의 말씀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한다. 그 말씀의 의미들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이나 깨달아지는 것들을 기록한다.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깨달아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도문을 쓰고, 그것으로 기도하면서 마친다. 제시하는 본문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등과 관련된 말씀으로 선정한다.

● **복음서 통독하기**

마태복음(28장), 마가복음(16장), 누가복음(24장), 요한복음(21장), 합계 89장의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통독할 복음서를 정하고, 선정된 복음서의 내용과 구조를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차트를 정리한다. 사순절 기간 4월 중에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시간을 정하고, 앞서 만든 차트를 이용하여 복음서를 설명하면서 함께 성경을 통독한다. 성경 통독이 끝나면 정리하는 성경 퀴즈 대회를 실시하고 성경 퀴즈 대회의 진행은 교회 형편에 맞게 실시하되 모든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참고적으로 TV에서 실시하는 '골든 벨을 울려라' 같은 형식의 진행도 응용해 볼 수 있다. 교회 단체적뿐 아니라 개인도 복음서를 많이 통독하시는 기간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다.

● **개인,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성경 묵상**

이 부문은 사순절 포스터 만들기를 할 때나 주간 모임이 가능한 단체들도 사용할 수 있다. 기도는 묵상한 뒤에 자유롭게 바치는 데 더 효과적이다.

1) 첫째 주의 주제 : 삶과 죽음

① 요한복음 12장
관용과 아량을 베풀 곳은? 새 생명을 잉태할 씨 는 뿌렸는가?

② 마태복음 13:31~31, 마가복음 41~9

가정과 공동체가 보다 나은 기독교인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 내가 해야 할 일은?

③ 누가복음 13:6~9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인가? 내가 그분을 닮

는 길은?

2) 둘째 주의 주제 : 달란트의 바늘

① 마태복음 25:14~30

나의 고유한 달란트는 무엇이며,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내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은? 왜 그런 일은 잘할 수 있는가? 실수와 잘못 그리고 실패했을 때 나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가? 지금 도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가?

3) 셋째 주의 주제 : 가치관 확립

① 마태복음 9:1~13, 19:16~30, 누가복음 10:38~4, 요한복음 8:11~11,

우리는 각자 고유한 권리는 무엇인가? 부모의 권리는? 자녀들의 권리는?

4) 넷째 주의 주제 : 용서

① 마태복음 18:23~25, 누가복음 6:27~33, 15:11~32, 23:33~34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용서란 무엇인가? 나 자신은 쉽게 용서하는데 왜 이웃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가? 용서하고 용서받은 기억은?

5) 다섯째 주의 주제 :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① 마태복음 26~28장, 마가복음 14~16장, 누가복음 22~24장, 요한복음 18~20장

어느 복음서의 고난기를 읽든지 꼭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 **사순절 기도회**

교회 형편에 맞게 시간과 기간을 정한다(예: 사순절 저녁 기도회, 사순절 새벽 기도회 등), 교인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약 30분을 전후하여 예배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앞서 제시한 복음서 통독하기를 실시해도 좋고 예배와 말씀 묵상이 끝나면 기도회를 한다. 이때 인도자는 미리 기도 제목과 진행 방법을 준비하여 진행하며, 실내의 조명은 약간 어둡게 한다. 고난 주간 1주간은 찬양 기도회로 진행하고 이때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찬양을 하면서 기도회를 진행한다.

● **사순절 고리 금식 기도회**

참여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고리 금식을 실시할 기간을 정한다. 인원에 따라 40일, 21일, 7일 등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기간이 정해지면 참가자의 형편에 따라 한 끼씩 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금식을 실시하되, 금식의 고리가 한 끼도 빠지지 않도록 인원을 배정한다. 만일 고리 금식이 어려우면 '성금요일' 하루를 금식하는 것도 좋다. 금식이 끝난 뒤에는 금식한 끼니의 식대를 헌금으로 봉헌하고, 이것을 모아서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면 더욱 좋겠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은혜로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 **기도하는 분위기 만들기**

사순절은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생각을 집중시키는 특별한 시기이다. 따라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려면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피고, 그분을 닮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경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이든 가족과 함께 하든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가정에 기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집안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한 공간이라 해서 집 안에 '기도방'을 반드시 만들라는 말은 아니다. 방이든 마루이든 어느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상을 하나 놓고, 그 위에 흰 보를 깔 뒤에 촛대 두 개와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하면 된다. 이외에 각자의 취향에 따라 장식물을 놓아둘 수도 있고, 꽃병 및 자신이 기도하는데 필요한 물건들로 꾸밀 수 있다. 기도소가 꾸며지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곳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 평소와 가정 예배를 공동으로 하지 않았으면, 이때부터 일정한 시간에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도록 약속한다.

● **국내 기독교 순례길 탐방**

대구와 전남 신안에는 지자체와 지역교회가 조성한 기독교 순례길이 있다. 신안군 5개 섬을 잇는 '섬타고 순례길'은 적지 않은 순례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담긴 대구의 청라언덕 순례 코스는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 이 길은 제중원(현 동산의료원)과 애락원 등을 잇는다.

전남 순천시 매산등 일원에는 순천시와 한국관광협회등이 협력해 조성한 성지순례길이 있다. 매산등 성지순례길은 100년 전 선교사가 걸었던 길을 따라 교회, 교육, 주거, 의료구역과 기도산을 탐방하는 5개의 코스로 구성돼 있다.

제주 순례길은 기독교인들의 순교터와 부흥사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코스다. 제주의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창조와 섭리를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인천시는 최근 '종교 관광 도시로의 변화를 천명했다. 개신교뿐 아니라 가톨릭, 성공회 등 여러 종단과 연계해 개항장 성지순례 코스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강화도 등 섬 지역 순교지로 확대하고 종교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 **고난 주간 경건하게 보내기**

- 1)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자.
- 2) 한 주간을 경건하게 기도하며 지내자.
- 3) 주간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자.
- 4) 아침 5일간을 온전한 금식을 하자.
- 5) 헬기를 내거나 험담을 하지 말자.
- 6)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삼가자.
- 7) 사치스러운 쇼핑을 하지 말자.
- 8) 외식을 하지 말자.
- 9) 가족들과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자.
- 10) 전화나 스마트폰(SNS)을 사용하지 말자.

사순절의 근원은 초기 교인들이 성찬식을 지켰던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금식했던 기독교인도 성찬식 전에 금식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오락이나, 연극, 무용, 연회 등을 금하고 화려한 옷이나 호화로운 음식, 허영적인 행동을 금하고 금식, 절식, 개인기도, 자선 사업에 힘쓰고 죄의 고백과 회개에 힘쓴다. 이 기간은 보라색으로 표시하며 이것은 근신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것으로 회개와 참회를 하는 마음의 자세를 암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길, 기독교인이 사는 법,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와 생활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교육적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랑의 아름다움



성준 목사
타코마 반석정교회

이솝 이야기에 세상 구경 나간 새끼 쥐가 처음 닭을 보니 빨간 벼를 세우고 목소리도 크고 날카로우며 쥐를 말뚝말뚝 쳐다보자 새끼 쥐는 닭을

매우 무섭고 위험한 존재로, 반면 고양이는 조용하고 털도 부드럽고 가볍게 움직여 운순하고 따뜻한 동물이라 생각합니다.

새끼 쥐 말을 들은 어미 쥐는 "큰 착각이다. 닭은 우리를 해치지 않지만 운순하게 보이는 고양이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길고슬 보다 세상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배운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물으면 대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

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물론 틀에 박힌 대답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분명한 길과 문을 열어 줍니다.

인생은 선택의 갈등입니다. 집밥을 먹을까? 외식을 할까? 짜장면을 시킬까? 우동을 시킬까? 아빠에게 전화할까? 엄마에게 전화할까? 교회를 갈까? 골프를 치러 갈까? 성경을 읽을까? 유튜브를 볼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자유의지는 어렵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분명한 자기의 선택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선택이 쉬워지고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선한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랑하면 이해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원수

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은 이 세상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 약하고 부드럽게 보이지만 죽음보다 강하고 생명까지 내어 줍니다. 충성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승리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재정은 영성의 거울이다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
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상처와 오해, 그리고 불신을 낳는 영역이 있다면 단연 재정이 다. 교회 재정은 숫자와 장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영성의 문제다.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설교가 아무리 좋고 사역이 활발해도 공동체는 금세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재정은 교회와 개인의 신앙적 영성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성경은 재정을 숨기지 않는다.
성경은 돈의 문제를 결코 회피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돈을 자주 언급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헌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와 마케도니아교회의 연보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는 우리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8:20)

그는 헌금을 혼자 관리하지 않았고, 여러 사람을 세워 공개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2. 재정 투명성은 영적인 선택이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은 단순한 회계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태도의 문제이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성도 앞에서 숨김이 없겠다는 고백이다. 반대로 재정을 “묵히는 묵히”고 돈은 행성이다”라며 일부만 아는 구조로 남겨둘 때, 교회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심게 된다. 불신은 대부분 침묵과 불분명함에서 자란다.

3. 재정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관계 인건과 인간사이 관계 문제다.

교회 재정 갈등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얼마를 썼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왜 결정했는가”이다. 건강한 교회 재정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가? 공동체의 합의와 분별은 있었는가? 사용 내역은 공유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변이 불분명할수록 오해는 커지고, 관계는 무너진다.

4. 재정위원회와 시스템의 중요성
교회 재정은 개인의 신앙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구조가 없으면 시험에 노출된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갖춘다.

- 1) 다수의 재정 담당자를 배치한다.
- 2) 재정위원회를 운영한다.
- 3) 정기적인 보고와 감사를 한다.
- 4) 명확한 승인 절차를 거처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사람을 의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재정 시스템이 건강할수록 목회자와 재정 담당자는 더 자유롭게 담대해진다.

5. 교회 헌금의 의미를 다시 세워야 한다.
헌금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표현이며, 공동체를 향한 신뢰의 고백이다. 그렇기에 헌금 사용 역시 예배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헌금이 바르게 사용될 때 성도들은 기쁨으로 드린다. 반대로 불분명한 사용은 헌금의 영적 의미를 훼손한다. 교회는 재정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키울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다.

6. 재정이 건강할 때 교회는 살아난다.
교회 재정이 건강해질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은 신뢰이다. 신뢰가 회복되면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되고, 사역은 힘을 얻는다. 재정은 교회의 가장 현실적인 영역이지만, 동시에 가장 영적인 영역이다.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교회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드러낸다.

투명한 재정은 교회를 세속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를 세속적 오해로부터 지켜준다. 교회가 재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으며, 공동체 앞에 솔직해질 때, 재정은 더 이상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된다.

재정은 숫자가 아니다. 재정은 사람이고, 관계이며, 그 사람의 신앙적 영성이다.

스스로 배우는 교사 가르치기도 잘 한다



고상범 목사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
대표

교회학교 교사는 단순히 성경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교사는 스스로 배우는 자세를 통해 끊임없는 자기 성장과 학습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이 된다.

한 교회에 20년째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사가 있었다. 누가 봐도 베테랑이다. 아이들도 좋아했고, 부모들의 신뢰도 두터웠다.

어느 날 새로 임명받은 교사가 물었다. “선생님은 이제 공과 준비가 쉬우시겠어요?”

그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매년 성경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제가 먼저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 교사의 반에는 늘 아이들이 모였다. 이

유는 단순했다. 그 교사는 매년 새로왔기 때문이었다.

교회학교 현장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잘 가르치는 교사는 먼저 잘 배우는 교사라는 사실이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잠 15)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계속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교사로 마찬가지다. 스스로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가르침도 멈추기 시작한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739-8119 광고문의 010-2700-3297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社說

손현보·김장환 목사 사례 주목하는 미국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최근 방한해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각각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독교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구속 사안이 한미 간의 외교 협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두 목사를 면담한 미국무부 인사는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으로 이들의 방한 목적이 국내 종교 자유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손현보 목사는 이와 관련, 미 국무부 측에서 방한에 앞서 먼저 오전과 면담을 제안해 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대사관인 하비브하우스에서 이들을 만났다고 한다. “한국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문제가 돼 구속으로 이어진 사태에 대해 미국 측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터너 부차관보가 따로 김장환 목사를 면담한 사실도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으나 특검이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의 대화 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 국무부 인사들은 지난달 23일 한교총을 방문해 한국 내 종교자유 상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손 목사 사례를 들어 “정부로부터 교회가 종교적 탄압을 받

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이 목회자 인식 구속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고, 한국교회가 종교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 인사들의 손현보 김장환 목사를 비롯, 한교총을 방문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연례 인권보고서, 국제 종교 자유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벤스 미 부통령이 방미한 김민석 총리에게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연례적인 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해 왔다. 김 목사도 윤 전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해 온 교계 원로라는 점에서 교계 일각에선 두 사람이 당한 일을 정치 보복 성격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

두 목사를 면담하고 한교총까지 방문한 국무부 인사들의 방한 목적이 연례 보고서 작성의 일환인지, 더 큰 파장을 몰고 오게 될지는 이 문제가 양국 간에 외교 쟁점으로 부상하느냐에 달렸다. 당장 매년 5, 6월경 미 의회에 제출하는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한국의 사례가 담긴다면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이란·북한, 핵 제거해야 평화·자유 회복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등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란 정권 붕괴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란의 권력 공백이 장기 불안정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화가 아닌 더욱 강경한 군사 권위주의 체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 CNN 등 미 언론들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후 이란 혁명수비대 중심의 권력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 분석 기사를 내놨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 정보 당국 평가에서도 기존 체제가 무너질 경우 온건 세력보다 조지력과 무력을 갖춘 강경파 잔존 세력이 권력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란은 인구 9000만명 규모의 다민족 국가다. 지역별 정치·종교·경제 이해관계가 크게 갈려있어 중앙 통제력이 약화돼 권력 중심이 흔들리면 무장 세력 간의 국지적 충돌로 내전 상태에 돌입할 수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 등 중동 전역의 안보 환경에 중대한 위협이 증대될 수 있다는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서 단기간 군사적 성과

를 강조하고 있지만 하메네이 정권 붕괴 이후 질서를 재건할 청사진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만약 이란이 보유한 핵을 다른 무장세력이 차지하면 미국이 하메네이 등을 제거할 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란과 북한은 파키스탄의 핵 기술을 넘겨받아 비밀리에 핵 체계를 완성한 공통점이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핵보유 추진세력을 제거했다고 하나 그것이 곧 핵 폐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란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게 바로 북한 핵문제다.

북한 김정일은 이번엔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는지 똑똑히 봤을 것이다. 하지만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핵탄두 수십 기를 보유한 북한은 최근 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 50문을 공개했다. 한국 전역이 사정권인 핵 방사포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응은커녕 북한 비위협착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핵을 포기하면 우리는 북한에 끌려다니는 처참한 신세가 될 것이다.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제33차 효명장학금 수여식 개최

2026년 상반기 14명에 4,700만 원 전달...
국내 1,502명 지원 이어 해외 4개국 110명 확대 계획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최근 서울 관내 복지관 S-어울림에서 '2026년 상반기 제33차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업 지속과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시각장애 대학생 14명에게 총 4,7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행사에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 김선태 목사, AMO그룹 김병규 회장, 도림교회 이남열 장로, 팽동재단 박상철 이사장과 반미애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효명장학금은 시각장애 대학생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장학사업으로, 이번 제33차 수여식을 통해 14명의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았다. 전달된 4,700만 원의 장학금은 학비와 학습 지원 등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학생 대표로 나선 이지민 학생은 "효명리더스클럽 활동에 참여하며 시각장애인으로서는 겪는 아픔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효명장학사업이 있어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벽을 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효명장학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공동체이자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누적 1,502명 25억7천만 원 지원 성과
효명장학금은 197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맹인선교부에서 시작됐으며, 2010년부터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사업이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제33차 효명장학금 수여식까지 누적 1,502명의 시각장애 대학생에게 약 25억7,000만 원이 지원됐다.

효명장학사업은 개인과 기업, 교회 및 단체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故김건철 장로를 비롯해 AMO그룹, 태재연구재단, 아모레퍼시픽그룹, 도림교회, 실로암안과병원, 동백수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후원자가 장학사업의 지속을 뒷받침해왔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효명장학금을 통해 시각장애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누적 25억 7천만 원 지원 성과는 장기간 이어진 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최근 서울 관내 복지관 S-어울림에서 '2026년 상반기 제33차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총 110명의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 학생을 포함한 장애인 인재 양성과 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국내에서 축적한 장학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규 관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효명장학금은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시각장애 학생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시각장애 인재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효명장학금을 중심으로 시각장애 대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장학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원과 협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효명장학사업은 국내 지원을 넘어 해외 개발도상국 장애인 지원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2026년에는 키르기스스탄과 네팔, ◆해외 4개국 110명 지원 계획... 장학사업 확대

리커버릭, 해외 아동·청소년 위해 4,700만 원 상당 하절기 의류 기부

피그먼트:카라 반팔 티셔츠 등 여름 의류 지원
고온다습 지역 아동 의복 부족 문제 보완

기독교 선교단체 지미션(대표 박종관)은 한편 원단 전문 개발 기업 리커버릭(대표 박영균)으로부터 약 4,700만 원 상당의 하절기 의류를 기부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해외 선교지 아동·청소년의 의복 부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미션에 따르면 기부 물품은 피그먼트 반팔 티셔츠와 카라 반팔 티셔츠 등 여름철 착용이 가능한 의류로 구성됐다. 해당 의류는 연중 고온다습한 기후 환경에 놓인 해외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됐다.

◆고온다습 기후 지역 아동 위한 하절기 의류 지원
해외 선교지 가운데 일부 지역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의류 교체와 세탁이 잦은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나 세탁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한 벌의 옷을 반복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은 여건에서는 의류의 내구성과 위생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리커버릭이 기부한 하절기 의류는 피

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반복 세탁에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으로 알려졌다. 지미션은 이번 지원이 해외 아동·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위생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미션은 전달받은 의류를 현지 선교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해외 선교지 아동·청소년으로, 현지 상황을 고려해 필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021~2022년 이어 지속된 해외 의류 지원
지미션은 앞서 2021년과 2022년에도 러시아와 캄보디아 사역지를 통해 의류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4,700만 원 상당 의류 기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현지 선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배분된다.

리커버릭은 2020년부터 지미션과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기부 물품 사용처와 전달 과정을 공유받는 방식으로 지속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전달식에서도 양측은 향후 지원 방향과 현장 필요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리커버릭 박영균 대표는 "아이들이 피



리커버릭-지미션 전달식. ©지미션

부 자극 없이 안심하고 입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을 만들겠다는 원칙으로 원단 개발과 제작에 임해왔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해외 선교지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의복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외 선교지 아동 건강위생 관리에 실질적 도움 기대
지미션 대외협력팀 담당자는 "리커버릭의 꾸준한 나눔과 투명한 지원 덕분에 현장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며 "선교지의 경우 계절 의류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이번 지원은 여름철 위생과 건강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전달받은 의류를 철저히 포장해 해외 선교지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겠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최승연 기자

초록우산-아이스크림에듀, 저소득층 아동 학습교재 지원

서울 60개 기관에 5,360세트 전달... 교육격차 해소 협력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AI 기반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가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초록우산은 최근 아이스크림에듀가 초등학생 대상 학습교재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초록우산과 아이스크림에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강화하며, 아동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60개 기관에 학습교재 5,360세트 전달
초록우산은 아이스크림에듀가 후원한 국어수학통합과목 학습교재 5,360세트를 서울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총 60개 기관에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교재는 각 기관에서 아동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공백 해소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학습교재 지원은 새 학기를 앞두고 이뤄져 아동들이 학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경우 사교육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학습 자료 제공은 교육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초록우산은 현장 기관과 협력해 교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습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부터 이어진 사회공헌 협력
아이스크림에듀는 2019년부터 초록우산과 협력해 매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물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새학기 시작 전 학습교재를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이 학습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아이스크림에듀는 학습교재 지원과 함께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홈런' 등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교육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기초 교육과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이스크림에듀 관계자는 "교육기업으로서 아이들의 기초 교육과 미래 핵심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학습교재 및 스마트 학습 '아이스크림 홈런'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학업과 건강한 성장을



구립서관동꿈나무키움돌봄센터 아동들이 학습교재를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

위한 사회공헌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 학습권 보장 위한 지속 지원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권 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모든 아이가 충분한 교육 기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과 아이스크림에듀의 이번 협력은 저소득층 아동 교육격차 해소라는 공통 목표 아래 이뤄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연 기자

www.e-construct.co.kr

여러분의 욕실 문화를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성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좋은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욕실 관련 전 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욕실용품 전문회사 이견비앤코

대표 최 훈 용 경기도 군포시 건건로 243-6(대야미동) 031-438-2576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독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움 6길 4

천혜의 자연환경, 영동 풍성기도원 매매

-위치: 충북 영동군 영동읍 479-8 외 1건 (영동역 5~10분 거리)
-규모: 토지: 834평 / 건물: 180평 (철근콘크리트조)
-수용인원: 100명 이상 수용 가능.

[시설 현황]
1. 제1·2성전, 방 10개(에어컨 완비), 기도실 5개, 화장실 7개, 주방 3개, 넓은 주차장, 아름다운 조경, 2.바로 앞 시냇물(수영 및 낚시 가능)

[특별 혜택]
1. 운영비 제로: 태양광(9kw) 및 지하수 사용으로 전기·수도료 무상 수준.
2.성물 무상 양도: 강대상, 음향, 피아노, 의자 등 물론 오면 즉시 운영 가능
매매가: 9억원 (답사 후 협의 가능 / 용도변경 가능)

[급매] 경북 영주 교회 및 주택 부지

-위치: 영주시 가흥동 637-7 외 1필지
-규모: 대지 62평 / 건물 50평
-매매가: 1억 3천만원

매/매/문의
010-9679-8275, 010-9883-8275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60:1)



대표 김덕검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공포-007
능지 못할지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갈급한 목회자와 교회개혁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역	일시	장소	대표인사
대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예목사) 주소:대전 중구 수침로111번길 33	강성은 목사 010.2211.7139
서울 경인 강원	26.01.19(월)-20(화)	인천 감탄비전교회(담임 박종민목사) 주소:인천 서구 환경로188번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산 울산 경남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 주소:부산 사하구 윤공단로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역	26.01.26(월)-27(화)	태안 에덴교회(담임 김순남목사) 주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북 청주	26.01.30(금)-31(토)	청주충신교회(담임 엄광섭목사) 주소: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9	엄광섭 목사 010.4410.9115
전북 광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덴교회(담임 양정옥목사) 주소: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실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전남 광주 경기 세종	26.03.09(월)-10(화)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 주소: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제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벌교회(담임 김홍식목사) 주소: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강사소개	양정옥 목사	예식성장교회부흥사 / 성장교회예식법
	곽윤관 목사	행복목회사역
	한영동 목사	목회교침사관학교 / 120명 자립교회
	정해숙 목사	말씀전도 부흥사 / 전도훈련
	홍지영 목사	부흥사 / 영성훈련
	임동호 목사	좋은교회운동본부 / 목회 AI활용법, 찬양
	오준실 목사	이야기하는 조직신학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회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시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신간 성경적 성령론



성령은 능력인가, 분위기인가, 아니면 삼위 일체 하나님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정면으로 답하는 신간 <성경적 성령론>이 출간됐다.

이 책은 개혁주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공교회적 시야를 견지해 온 신학자 로버트 레슨의 대표적 성령론 저작이다. 성경 본문과 교회사 전통을 아우르며, 성령을 삼위일체의 복되신 세 번째 위격으로 온전히 이해하도록 돕는 표준 안내서다.

<성경적 성령론>은 단순한 성경 주해에 머물지 않는다. 교부 시대 삼위일체 논쟁과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필리오키 논쟁, 중세 신학과 종교개혁, 개혁과 정통과 현대 신학에 이르기까지 성령 교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다듬어졌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한다.

저자는 아타나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교부들의 논의를 통해 성령의 발출(procession)과 위격, 신성을 정교하게 설명한다. 특히 '필리오키' 논쟁을 다루며, 아버지의 유일 군주권과 아들과의 동일본질성을 함께 지키려 했던 서방 교회의 시도와 동방의 우려를 균형 있게 제시한다. 성령은 결코 아들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한 본질을 공유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분명히 한다.

이 책은 성령의 사역을 은사나 체험에 국한하지 않는다. 창조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동정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사역, 오순절 사건, 교회의 형성과 성화, 그리고 종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속사 전체를 아우른다.

성령은 단지 세상에서 활동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현존이다. 구약의 '루아흐'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 효력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은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역사하신다. 또한 칼뱅의 통찰을 따라, 성령은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끄신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 문제다. 레슨은 오순절 사건이 반복 가능한 개인적 체험인지, 혹은 구속사적 전환점인지에 대해 성경적·교리적 기준으로 신중하게 접근한다. 오순절은 공동체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이며, 그 자체로 반복될 수 없는 구속사적 전환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성령의 사역이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신약의 증언을 놓치지 않는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열매'를 제시한다. 인내, 친절,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공동체야말로 성령이 뚜렷하게 역사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감정의 고조나 비이성적 현상과 성령의 역사를 동일시하는 태도에 대해 경계하며, 말씀과 교회의 전통 안에서 균형을 찾도록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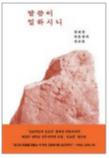
<성경적 성령론>은 단지 학문적 논의를 위한 책이 아니다. 저자는 성령 이해의 왜곡이 목회 현장의 혼선을 낳는다고 지적하며, 올바른 교리적 토대 위에서 설교와 예배, 성례와 성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승연 기자

스마를 신뢰하기보다,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 책은 설교자를 위한 지침서이면서 동시에 회중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러틀리지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신 약속이 회중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강조한다. 말씀을 전하는 자뿐 아니라 듣는 자 또한 '말씀을 들으라는 부름을 받은' 존재다. 설교의 생명은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연금술'과 같은 사건 속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속한다.

러틀리지는 오늘날 교회가 설교를 지나치게 전략화하고 기술화하는 흐름을 비판한다. 설교자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인이다. 인간의 재능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급진적 겸손'이야말로 설교자의 핵심 태도라는 것이다. 최승연 기자

신간 말씀이 일하시니



설교의 본질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 "설교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는 책이 출간됐다. <말씀이 일하시니>는 '설교자들의 설교자로 불리는 플레밍 러틀리지가 2019년 베일러 대학교 신학대학원 '트루트 퍼차먼 강좌에서 전한 설교론 강연'을 엮은 책이다.

러틀리지는 미국 성공회 최초의 여성 사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랜 교구 사역과 세계 각지에서의 강연과 설교를 통해 깊은 신학적 통찰과 설교적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이 책은 그녀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체득한 설교의 본질을 집약적으로 담아낸 강연록이다. 러틀리지는 설교를 단순한 종교적 위로나 수사적 기술로 축소하는 경향을 강하게 경계한다. 그녀에 따르면 복음 설교는 한 사람이 청중 앞에서 펼쳐는 퍼포먼스가 아니다. 설교는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하

나의 '작품'이며, 하나님이 진히 역사하시는 사건이다. 이 책은 종교개혁 전통 위에서 "선포된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학적 확신을 다시 강조한다. 복음 선포는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감춰져 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난 십자가의 '미련해 보이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백을 설교의 중심에 놓는다. 러틀리지는 설교가 성경의 거대한 서사, 곧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신약성서와 포로기 이후 형성된 구약 본문들에 뿌리를 둔 묵시적 시나리오를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주적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라는 틀 속에서 조망한다.

이 책은 설교를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심리적 위로로 축소하지 않도록 돕는다. 설교는 중립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담론이 아니라, 이미 다른 힘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선포되는 복음이다. 그렇기에 설교자는 자신의 기교나 카리

스마를 신뢰하기보다,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이 책은 설교자를 위한 지침서이면서 동시에 회중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러틀리지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신 약속이 회중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강조한다. 말씀을 전하는 자뿐 아니라 듣는 자 또한 '말씀을 들으라는 부름을 받은' 존재다. 설교의 생명은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연금술'과 같은 사건 속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속한다.

러틀리지는 오늘날 교회가 설교를 지나치게 전략화하고 기술화하는 흐름을 비판한다. 설교자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인이다. 인간의 재능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급진적 겸손'이야말로 설교자의 핵심 태도라는 것이다. 최승연 기자

한동대 심규진 교수, 「우주실패실록」 3월 1일 출간

'우주최고실패대회' 기록 집대성...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자산으로 조망



한동대학교(총장 박성진) 창의융합교육원 심규진 교수가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리빙랩 프로젝트 성과를 담은 단행본 「우주실패실록」을 3월 1일 출간했다.

「우주실패실록」은 2025년 11월 열린 '제1회 우주최고실패대회'의 기록을 집대성한 책으로, 전국에서 9세부터 84세까지 총 71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신의 실패 경험을 공유한 대회 수상자 5명의 이야기를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다. 박정수, 김노아, 서정훈, 김가는, 김민선 씨 등 수상자들의 실패와 극복 과정은 교육학자 데이비드 콜브(David Kolb)의 경험학습이론에 따라 '구체적 경험-성찰적 관찰-추상적 개념화-적극적 실험'의 4단계 프레임워크로 구성돼 학술적 깊이를 더했다.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특정 연령이나 직업군에 국한되지 않는다. 청소년에게는 실패에 대한 위로를, 청년에게는 도전에 대한 용기를 전하며, 부모에게는 자녀의 실패에 대하는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업가와 조직 리더에게는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가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번 출간은 포스코인재창조원, 포항문화원, 온커뮤니케이션 등 지역 기관·기업과 협력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된 '지역사회 실패수용성 제고를 위한 참여형 문화혁신 리빙랩'의 최종 성과물이다. 핵심 프로그램인 '제1회 우주최고실패대회'는 국민일보와 '세계 실패의 날'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소개되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장지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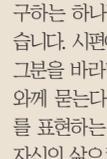
책은 총 3부로 구성된다. 제1부 '실패에 대한 정의'에서는 실패의 개념을 사전적·학술적으로 재해석하고, 제2부 '실패가 줄 수 있는 교훈'에서는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는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제3부 '인공지능 시대, 성공보다 실패가 중요한 이유'에서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 실패 경험이 지니는 본질적 가치를 조명한다.

이 책은 '우주최고실패대회'의 기록을 집대성한 책으로, 전국에서 9세부터 84세까지 총 71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신의 실패 경험을 공유한 대회 수상자 5명의 이야기를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다. 박정수, 김노아, 서정훈, 김가는, 김민선 씨 등 수상자들의 실패와 극복 과정은 교육학자 데이비드 콜브(David Kolb)의 경험학습이론에 따라 '구체적 경험-성찰적 관찰-추상적 개념화-적극적 실험'의 4단계 프레임워크로 구성돼 학술적 깊이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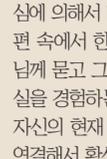
3월, 작가들의 말말말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뭔가를 묻고 기도하는 행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삶의 다양한 현실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이 묻고 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 신뢰와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께 묻는 것을,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것이요, 그 관계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호와와의 이름과 성품,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행하심에 의해서 미래를 확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 시편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히 말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는 자신을 대적하는 현실을 경험하든, 모든 환난에 해당하는 것을 경험하든, 하나님을 자신의 현재 상황과만 연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까지 연결해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박순웅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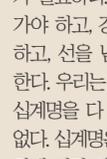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 줄 수 있는 지침과 기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은 바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선명한 인생 기준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바운더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안전지대에서 살아가야 하고, 경계선 가까에서 머무는 것은 한시라도 조심해야 하고,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과감하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그어 주신 선을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십계명은 우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한다. 십계명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게 만든다. 한기채 '선을 지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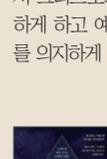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앙 생활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단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구원 문제를 개인적 측면에서만 다루는 구원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집단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교회론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단의 기능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한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중심, 제단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단 중심의 신앙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 김현덕 '구속사로 본 거룩한 공동체'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 줄 수 있는 지침과 기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은 바로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선명한 인생 기준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바운더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안전지대에서 살아가야 하고, 경계선 가까에서 머무는 것은 한시라도 조심해야 하고,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과감하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그어 주신 선을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십계명은 우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한다.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한다. 십계명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게 만든다. 한기채 '선을 지켜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앙 생활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단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구원 문제를 개인적 측면에서만 다루는 구원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집단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교회론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단의 기능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한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중심, 제단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단 중심의 신앙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 김현덕 '구속사로 본 거룩한 공동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신앙 생활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단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구원 문제를 개인적 측면에서만 다루는 구원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집단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교회론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단의 기능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한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중심, 제단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단 중심의 신앙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 김현덕 '구속사로 본 거룩한 공동체'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문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기독교 교회사 (50)

날 새를 함께 하소서

옛세네파
 옛세네파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론'의 해석에 의하면 경건한 또는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수리아의 셈어 "하사야"(chasayya, -chasay의 복수)가 헬리아어화 되어 "호시오이"(경건한, 거룩한 사람들)로 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장 유력하다.
 옛세네파는 농경 및 수공예 생산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공유하였다. 재산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었고 지극히 검소한 삶을 살았다. 겉옷이 두 벌인 자는 한 벌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고 실밥이 헤어지도록 아껴 입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에 의하여 노예제도를 거부했고 결혼제도를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정결을 중요하게 여겨 독신주의 생활을 했다. 그들은 또한 항상 목욕을 하였으며 채식주의 생활을 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엄수했으며 율법을 절대 엄수했고 율법 연구에 전념했으나 동물의 희생 제사를 반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삶에 지

장 받지 않으려고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려면 자신들의 법을 절대 엄수할 것을 서약한 후에 가입시켰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갈등이 있었다. 특히 자신들의 조국이 로마를 비롯한 외세에 의하여 식민 통치됨으로 외세에 대처하는 문제로 갈등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오직 신앙생활만을 강조하는 가운데 무저항주의 또는 수동적 저항주의를 주장하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적극적인 저항을 주장했다.
 적극적인 저항을 주장하는 자들은 대부분 열심당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다. 그들은 주로 사해 부근에 거주했는데 그들이 거주하던 사해 일대의 쿨란 지역은 기원 66-70년대에 있었던 유대 반란 전투 시에 격렬한 전쟁터였다. 따라서 당시에 옛세네파의 저항 운동자들이 그 전쟁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성경은 옛세네파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옛세네파에 대한 기록은 '필론', '에우세비우스', '요세푸스' 등의 저서들을 통하여 알려져 왔고 사해 문서들과 쿨란 문서들을 비롯한 문서들을 통하여 나타난다. 특히 요세푸스는 옛세네파와 직접적인 교류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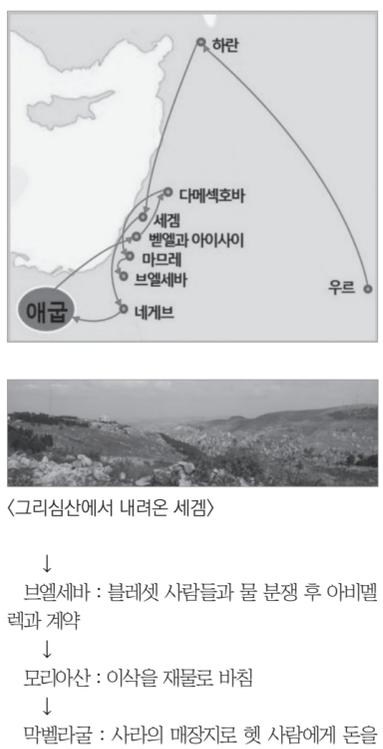
많은 역사 신학자들은 옛세네파 교회와 쿨란 교회를 같은 신앙적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러나 '요세푸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약 4,000명 이상의 옛세네파 사람들이 존재한 반면에 고고학자들의 발굴 조사에 의하면 쿨란 공동체는 약 200명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쿨란 공동체는 옛세네파의 일원이었거나 또는 옛세네파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지도자적 계열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옛세네파는 제 1차 유대 전쟁 이후 A.D. 70년에 이르러 자취를 감추었다.
쿨란 공동체
 쿨란 공동체는 사해 문서 중의 쿨란 사본을 만들어 낸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던 신앙적 공동체이다. 쿨란 폐허가 발굴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존재가 알려졌는데 그들은 쿨란 동굴에서 엄격한 계율을 지키며 수도사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쿨란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알려주는 자료로는 교단규계율(敎團敎規戒律-IQS), 회중규정(會衆規定-IQSa), 감사의 시편(感謝의 詩篇-IQH) 외에 1910년에 카이로에서 발견된 대제사 문서 등이 있

다. 자료에 의하면 쿨란 사람들은 자신들을 '언약의 백성', '탁함 받은 자', '참된 이스라엘' 등으로 호칭했다.
 그들은 3명의 제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성도로 구성된 최고회의를 운영하였으며 12명의 최고회의 회원들은 교리적, 정신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지도했다. 그들은 또한 '큰 자들'이라는 지도자 조직을 만들어 교단에 새로 가입하는 자들을 심사하고 결정하였으며 계율을 범한 자들을 재판하였다.
 쿨란 공동체는 자신들의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자들을 증오하고 배격했으며 철저한 폐쇄주의적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적 공동체는 유대교의 종료와 기독교의 발전에 따라 사멸되었다.
 역사가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옛세네파, 열심당원 등등은 파(派) 또는 당(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반면에 쿨란 종파에 대해서는 '쿨란 공동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다른 종파들은 때때로 종교적 파벌 의식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하면서도 민족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동족으로서 하나가 되었던 반면에 쿨란 공동체는 오직 종교적 집단 의식에만 집중하

여 민족적 문제에도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신앙적 공동체로 분류하여 배척했던 것이다.
 현대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등등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앞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종교적 파벌을 형성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적 개념 하에 분리될 수 없는 형태로 인식하였다.
 유대인들이 파(派) 또는 당(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동체라는 명칭을 오직 쿨란 종파에만 적용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과 동족이기를 거부한 때문이었다. 마태, 마가, 누가 등등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하여 자신들을 추종하는 별도의 그룹을 형성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실제적, 유기체이다. 따라서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등등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기독교 역사를 오류 시키는 것이며 기독교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계속) 천교도 도서관 제공

이스라엘라이프 족장들의 이동경로 (1)

◆ 아브라함의 이동경로 ◆
 갈대아우르 : 아브라함의 고향,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남
 ↓
 하란 :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75세에 가나안으로 떠남, 조카 롯이 동행
 ↓
 세겜 : 가나안 도착 첫 번째 지역, 단을 쌓고 예배 드림
 ↓
 네게브 : 남방 지역,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떠남
 ↓
 애굽 : 사래를 바로에게 누이라함, 재물이 풍족해서 나눔
 ↓
 벨엘과 아이사이 : 가나안으로 돌아옴, 롯과 분쟁(롯은 소돔을 택함)
 ↓
 다메섹 호바 : 313명의 병사로 아습하여 롯과 포로 및 약탈물을 구함
 ↓
 마르레 : 헤브론, 이스마엘을 얻음, 하나님과 2명의 천사를 만남(이삭을 약속받음)
 ↓
 그랄 : 아비멜렉에게 사리를 누이라 함, 이삭을 낳음



바이블지식IN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사귀거나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데이트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며, 결혼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그림은 두 마리의 어울리지 않는 소가 같은 멍에를 쓴 모습입니다. 그 소들은 함께 짐을 끌어당기는 대신에 서로 상반되게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이 구체적으로 결혼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결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사탄)이 조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기독교인의 결혼은 영적인 조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그들은 구원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고후 6:15-17).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 밖에서 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결혼에서만큼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고전 15:33)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와 어떤 방식이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길로 신속히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친밀하게 되라고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하라고 부름 받았습니. 믿지 않는 자들과 좋은 우정을 쌓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 자와 데이트를 한다면, 솔직히 당신의 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영에 감동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불신자와 결혼한다면, 어떻게 두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영적인 친밀감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훌륭한 결혼생활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깃첵스천스 제공

행복한농업,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의

영혼의 양식(42) 은사가 넘쳤으나 무너진 교회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27절

서론

고린도 교회는 방랑한 교회가 아니었습니.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났고, 예배는 뜨거웠으며, 영적 체험도 풍성했습니다. 방언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고, 지식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겉으

로 보기에 그 교회는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드러납니다. 분열이 있었고, 파벌이 있었으며, 서로를 판단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바울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몸'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는 교회를 조직이나 집단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각 지체를 통해 흐르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부르심입니다.

본문

I. 한 몸, 많은 지체 (고린도전서 12:12-13)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12절) 바울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에서 출발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제적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라는 통일성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이라는 다양성입니다. 하나 됨을 잃으면 분열이 되고, 다양성을 잃으면 획일주의가 됩니다.

13절은 그 연합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말씀은 교회의 통일성이 인간적 합의에서 온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기에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초월성입니다. 교회는 혈연 공동체도 아니고, 이해관계 공동체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창조된 새 인류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덧붙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

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당시 사회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구분이 여기 모두 등장합니다. 민족, 신분, 계층. 그러나 성령은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구원은 인격적으로 받지만, 삶은 공동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은 모임을 통해 보호되고, 격려를 통해 자라며, 연결을 통해 성숙합니다. 교회는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교회는 존재 방식입니다.

II. 비교가 사명을 무너뜨립니다 (고린도전서 12:14-20)

1) 하나님은 각 지체를 두셨습니다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이 구절은 단순한 위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설명하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지체의 위치는 인간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배치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셨느니라"입니다. 이는 의도적 배치를 뜻합니다. 당신의 자리, 당신의 역할, 당신이 가진 은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사명을 기억하면 비교는 멈춥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를 볼 때,



타인의 자리를 탐하지 않게 됩니다.

2) 확립성은 건강이 아닙니다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마..." 바울은 극단적 상상을 통해 진리를 선포합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보는 기능은 뛰어날지 몰라도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몸은 다양한 기능의 협력으로 유지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은 결함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다름의 차이는 경쟁의 근거가 아니라 상호 의존의 이유입니다. 바울은 은사의 위계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합니다. 은사의 방향은 언제나 공동체입니다. 나를 향할 때 왜곡되고, 몸을 향할 때 온전해집니다. 비교는 사명을 약화시키고, 확립성은 공동체를 경직시킵니다.

III. 약한 지체의 영광 (고린도전서 12:21-25)

1)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합니다 (22절):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바울은 여기서 세상의 기준을 뒤집습니다. 세상은 드러나는 것, 힘 있는 것, 영향력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중요성은 노출의 정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보다, 뒤에서 기도할 때 떠받치는 사람이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손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준비하는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충성이 교회를 붙들습니다. 하나님은 드러남보다 역할을 보십니다.

2)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교만을 무너

뜨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2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의 자랑을 무너뜨리십니다. 이는 단순한 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막대기 하나를 든 모세, 소년 다윗, 포로지에서 기도하던 다니엘. 하나님은 늘 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라야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필요 없어"라는 말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자리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나는 없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몸의 원리를 거스르게 됩니다.

3)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귀환을 임히시는 하나님 (23-24절):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지체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큰 배려로 감싸십니다. 몸에서 민감한 부위를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노출시키지 않고 감싸며 지킵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해 차갑게 판단하지 말고, 실수한 이를 쉽게 정죄하지 말고,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25절은 그 목적을 밝힙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설계는 경쟁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구조는

우열이 아니라 상호 보호입니다.

4) 건강한 교회의 표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화려한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약한 지체가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교회, 실수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회, 연약한 자가 보호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약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납니다. 책임 있는 참여입니다.

2)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바울은 고통 뿐 아니라 영광도 함께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일은 열등감과 경쟁심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시기심이 작동하면 몸은 갈라집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기쁨은 몸을 단단하게 묶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선택적 옵션이 아닙니다. 몸 된 공동체의 기본 태도입니다.

3) 우리는 몸의 일부입니다 (27절): 27절은 선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부분'이라는 표현은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분리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존재이지만,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다루십니다. 때로는 형제를 통해, 때로는 갈등을 통해, 때로는 용서를 통해 우리를 빛으십니다. 공감은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IV. 공감하는 몸 (고린도전서 12:26-27)

1)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 바울은 "함께 고통을 받고"라고 말합니다. 공감은 감정을 넘어, 존재적 연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누군가 궁핍하면 공동체가 책임졌습니다. 누군가 박해를 받으면 함께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감옥에 갇히면 모두가 염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커졌지만,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함께 드리지만, 삶은 각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은 감정적 동요가 아

결론

당신이 있어야 몸이 완성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체를 통해 흐르는 한 몸입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뜻대로 두신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으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나는 별로 할 일이 없게" 계시며, 그 일에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야 몸이 온전해집니다.

다. 동시에 교만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몸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붙들고, 사랑이라는 방향 위에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야 몸이 온전해집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교로 스스로를 낮추지 않게 하시고, 교만으로 형제를 밀어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두신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약한 지체를 더욱 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원호 목사 (서울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전 교인을 위한 기도 필독서 캠페인
"언제까지 남의 기도문에 의존하시겠습니까?"

하브루타식 기도훈련 적용 가능!
- 질문하며 읽고, 나누며 배우고, 기도하며 적용한다
- 생모임 / 제자훈련 / 청년부 / 교회학교까지 전 세대 활용 가능!

✓ 대표기도가 부담스러운 성도에게
✓ 기도 습관을 배우고 싶은 새신자에게
✓ 공동체 전체의 기도 체질을 바꾸고 싶은 교회에 '기도할 때 역전되리라,'

단체 구매 및 전 교회 기도 캠페인 문의: edu10004@naver.com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피톤치드

교계·선교·NGO 동향

교계

2026년 3월 3일(화) 주요 교계 일정표

단체/교단	일정 내용	장소 및 시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10-2차 예큐메니칼위원회 정기회의	한국기독교교회관 912호 (11:00-17:00)
한국기독교공보	창간 80주년 기념 '기독교문화대상' 접수 마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402호 (13:00 마감)
(사)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KAIC)	목사 안수 최종 합격자 필수 부부 목회 세 미나	개별 공지 장소
한국미술인선교회 (한미선)	제12회 아트랜스로지전 개막	극동갤러리 (극동방송 지하 1층)
코스테(KOSTE)	제41회 코스테 수양회 개막 ('AI 시대, 그 래도 복음')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수양관
가프콘(Gafcon)	G26 주교회의 개막	나이지리아 아부자

2026년 3월 3일 화요일, 국내 주요 교단에서는 행정과 공모 마감, 그리고 대규모 국제 신앙 집회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912호에서 제110-2차 예큐메니칼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교단의 예큐메니칼 정책 및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가 창간 8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기독교문화대상' 공모 접수는 이날 오후 1시에 마감된다. 접수처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402호 사무국이며, 문학(시, 소설) 및 영상(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AI 활용 영상 등) 분야의 작품들이 최종 도착할 예정이다.

교육 및 전시 일정도 이어진다. (사)

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는 목사 안수 예정 최종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필수 부부 목회 세미나를 실시한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극동갤러리에서는 한국미술인선교회(한미선)가 주관하는 '제12회 아트랜스로지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술가들'을 주제로 개막한다. 해당 전시는 3월 16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시작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수양관에서 "AI 시대, 그 래도 복음"을 주제로 한 제41회 코스테(KOSTE) 수양회가 개막하여 3월 6일까지 유럽 한인 청년 및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는 전 세계 복음주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가프콘(Gafcon) 'G26 주교회의'가 이날 개막하여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형구 기자

선교

2026년 3월 3일 화요일, 한국 세계 선교 연합체 및 주요 선교 단체들이 국내외에서 다양한 훈련과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한인선교연합(KOSTE)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수양관에서 '제41회 2026 코스테 수양회'를 개막한다. 이번 수양회는 'AI시대, 그 래도 복음'이라는 주제로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메릴랜드 헬로쉽교회에서는 GP 선교회 등이 협력하는 '카이로스(Kairos) 선교 훈련' 3일차 일정이 이어진다. 해당 훈련은 지난 1일 시작되어 오는 8일까지 집중 코스로 진행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거룩한방파제 선교협력팀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온세계교회 본당에서 '성경적 성(性) 가치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상원, 이재욱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관련 가치를 공유할 예정이다. 총회세계선교회(GMS)는 3월을 맞아 일본 등 해외 사역지에 파견된 송사무엘 선교사를 포함한 신규 선교사들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가동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내 주요 성전에서 선교 관련 기도 모임이 집중된다. 새벽 4시 바울성전의 선교 기도회를 시작으로, 오전 7시 시온성전 교역자기도회,

오후 7시 CGI성전의 스페인어 기도회 및 찬양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예수전도단(YWAM) 대구지부를 비롯한 전국 지부와 인터콥(InterCP) 국내의 지부에서도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정기 선교 기도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O)는 5월 뉴욕 대회를 위한 행정 준비를 지속하며, HOPE 선교회와 산소망 선교회 등 일부 단체의 대외 일정은 이번 주 후반이나 차주로 예정되어 있다. 장지동 기자

2026년 3월 3일(화) 주요 선교 일정 요약

단체명	행사/활동명	장소	비고
KOSTE(유럽한인선교연합)	제41회 2026 코스테 수양회 개막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수양관	주제: 'AI시대, 그 래도 복음'
GP 선교회 (Global Partners)	카이로스(Kairos) 선교 훈련 (3일차)	미국 메릴랜드 헬로쉽 교회	3월 1일-8일 전체 일정 중 당일 과정
거룩한방파제 (선교협력팀)	성경적 성(性) 가치관 세미나	온세계교회 본당	10:30-16:00, 이상원 이재욱 발제
GMS (총회세계선교회)	3월 신규 사역 공식 가동	일본 사역지 등	송사무엘 선교사 등 신규 선교사 사역 개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센터 외)	선교 기도회 및 사역 연습	바울성전, 시온성전, CGI성전 등	새벽기도, 교역자기도회, 스페인어 기도회 등
예수전도단 (YWAM)	각 지역지부 정기 화요모임	대구지부(내담교회) 등 전국지부	정기 선교 집회 및 기도회
인터콥 (InterCP)	정기 화요 선교 기도 모임	국내외 각 지부	미전도종족을 위한 정기 기도회

NGO

2026년 3월 3일(화) 기독교 NGO 주요 일정

시간	기관명	활동 및 사업 상세 내용
08:30 - 14:30	다일공동체	청량리 밤파나눔운동본부 정기 무료 급식 봉사 (식재료 준비 및 배식)
09:00 - 18:00	지파운데이션	위탁 운영 기관(송파구가족센터) 신규 행정 인력 및 1인 가구 자원팀 정식 근무 개시
10:00	한국해비타트	'주거환경 개선공사(서울 관악구 대상)'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및 서류 심사
14:00	희망친구 기아대책	2026년도 상반기 지역 복지 협력 사업 운영 제안서 제출 마감
14:00	지파운데이션	지역 주민 대상 '반려식물전문관리사' 교육 프로그램 선착순 수강 신청 개시
종일	밀알복지재단	한국예탁결제원(KSD) 나눔재단 협력 신규 장학생 모집 접수 시작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 및 전산 시스템 정상 가동
		'알레그로-점프' 사업 선정 결과 공지
종일	월드비전	'2026 드림클래스' 초·중등 교육자료 온라인 신청 및 배포 서비스 개시
종일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 1차 서류 합격자 개별 발표 및 신규 활동가 모집 시작
종일	CBTS	중앙침례신학대학원 불학기(II) 디플로마 및 목회학 석사 과정 입학 신청 마감

3월 3일, 국내 주요 기독교 NGO 단체들이 일제히 신학기 맞이 지원 사업을 개시하고 주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 월드비전 등 교육 지원에 특화된 단체들은 3일을 기점으로 수

혜자 모집과 자료 배포에 나선다. 밀알복지재단은 한국예탁결제원(KSD) 나눔재단과 협력하여 장애 및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 사업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틀간 진행된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마치고 정상

적인 전산 서비스를 재개한다. 월드비전 또한 전국 초·중학생을 위한 '2026 드림클래스' 프로그램의 교육자료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당일 오픈할 예정이다.

주거 및 지역 복지 분야의 행정 마감도 이어진다. 한국해비타트는 오전 10시, 서울 관악구 지역 3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공사의 시공업체 입찰을 마감하고 곧바로 서류 심사에 착수한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오후 2시에 상반기 운영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며, 성서화운동본부와 협력하는 노숙인 대상 '따뜻한 밥상' 무료 급식 지원 행정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현장 봉사와 인력 운영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일공동체는 서울

청량리 밤파나눔운동본부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무료탁 노인과 노숙인을 위한 정기 급식 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지파운데이션은 위탁 운영 중인 송파구가족센터에 신규 채용된 1인 가구 자원팀 및 행정적 인력들이 정식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며, 오후 2시부터는 지역 주민을 위한 자격증 교육 과정 수강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의 서류 합격자를 발표함과 동시에 3월 한 달간 진행될 신규 활동가 모집 공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인 중앙침례신학대학원(CBTS)은 당일 오후를 기해 불학기 석사 과정 입학 신청 접수를 최종 마감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민족복음화 파주DMZ본부 출범한다... "복음통일 준비"

이태희 총재 "분단의 땅에서 복음통일의 기도 불씨 지필 것"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준비하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파주DMZ본부'를 출범시키며 복음과 운동의 외연을 확장한다. 운동본부는 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범흥로 아름다운교회에서 파주DMZ본부 발대식 및 취임예배를 갖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합 기도와 지역 복음화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이번 발대식은 단순한 지역 조직 신설을 넘어 DMZ 인접 지역을 영적 전초기지로 세우는 전략적 의미를 담았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운동본부는 "파주는 한강과 서해를 잇고 북으로 향하는 관문과 같은 지역"이라며 "분단의 상징인 이곳에서 영적 부흥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것이 이번 출범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 통일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영적 통일'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기도와 회개, 전도와 성령운동을 통해 민족의 회복을 이루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희 총재를 비롯해 임인기 대표총회장, 권계현 대회장, 정석우 상임회장, 배미령 사무총장, 안재홍 실무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취임예배를 통해 파주DMZ본부 조직이 공식화되며, 향후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연합 기도와 지역 전도집회, 차세대 영성훈련 프로그램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태희 총재는 파주DMZ본부 출범의 의미에 대해 "파주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복음 통일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땅"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복음으로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기도의 불을 이곳에서 지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DMZ는 막힌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자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7년 대성회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2027년 행사는 단회성 집회가 아니라 전국과 지역, 다음세대를 연결하는 영적 네트워크 운동"이라며 "파주DMZ본부는 그 전략적 거점으로, 회개운동과 전도운동, 성령운동이 지역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일 때 대성회의 의미가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교회를 향해 "지금은 비판보다 연합이 필요하다"며 "교단과 세대를 넘어 복음이라는 본질로 돌아가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민족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파주DMZ본부는 행정 조직을 넘어 지역 교회를 연결하는 영적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곳에서 시작된 기도의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도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026 부활절 연합 수련회, 4월 3일 개최



지난해 부활절 연합 수련회가 열린 모습 ©그레이트커미션선교대회

2박 3일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OAPC에서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2026 부활절 연합 수련회'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OAPC에서 개최된다.

그레이트커미션선교대회가 주최하는 2026 부활절 연합 수련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는 주제 아래, 부활의 능력을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최 측은 "이번 부활절 연합 수련회가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찬양과 기도로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님께서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소이다"며, 성도들 간의 뜨거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다수의 목회자와 선교단체 리더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주요 강사는 ▲강해주 목사(임마누엘교회) ▲최재성 목사(밀알교회 담임) ▲장시환 목사(새안교회 담임) ▲정상우 목사(동산교회 담임) ▲신정환 목사(OAAP 사무총장) ▲신유정 목사(엘림 대표) ▲안경일 목사(YEF Korea 대표)



들이 나서며, 찬양 사역팀인 '주빌리워십(Jubilee Worship)'이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인도할 예정이다.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easterretreat.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레이트커미션선교대회는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가입 교단 소속 교회들과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연합해 예수님의 대지상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초교파 선교대회이다. 김진영 기자

글로벌리더십개발원, 필리핀 캠퍼스 미션 전개... 112명 전도단 파송

UP서 문화전도·복음 사역... 현지 선교단체와 협력 기반 구축

글로벌리더십개발원(원장 임경철 박사)이 필리핀 국립대학 캠퍼스에서 대규모 전도 사역을 펼치며 차세대 글로벌 복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글로벌리더십개발원은 지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112명으로 구성된 전도단을 필리핀 마닐라에 파송해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UP) 캠퍼스에서 문화 전도를 중심으로 한 미션트립을 진행했다. 이번 사역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대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지하고 4일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을 운영했다. 참가 학생들은 한국어 체험과 문화 교류 과정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했으며, 이 기간 동안 다수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시간에는 현지 선교사를 초청해 필리핀 선교 현황을 공유하고 영적 부흥집회를 열어 참가자들의 선교적 비전을 새롭게 했다. 특히 수요일 오후에는 Christ's Commission Fellowship(CCF)에서 전도 초청찬회가 열려 전도된 학생들과 사역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임경철 원장의 말씀 선포와 초청에 따라 현



기념촬영에 임한 관계자들의 모습. ©글로벌리더십개발원

지 청년들이 신앙을 결단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태권도 시범을 비롯해 북 공연과 부채춤, 찬양댄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돼 한국과 필리핀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제의 장이 마련됐다. 이후 식사와 교류 시간을 통해 대학생 간 관계 형성이 이어지며 캠퍼스 사역의 열매를 더했다. 김진영 기자

필리핀한국선교협의회 김상호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캠퍼스 사역 전문단체인 글로벌리더십개발원 전도단의 헌신이 국립대학에서 문화와 전도를 결합한 새로운 선교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 우찬 선교사도 축사를 통해 현지 사역에 대한 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션트립 기간 중 필리핀한국선교협의회와 글로벌리더십개발원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캠퍼스 복음화와 선교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최 측은 "이번 사역은 장기적인 캠퍼스 선교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한국과 필리핀 청년을 잇는 복음 네트워크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한동대, 2026학년도 우수입학생 10명에 장학금 수여

'김종민-에스겔 선교회 차세대 리더 장학금' 신설 확대... 등록금 넘어 GRP-해외 인턴십까지 지원



한동대 2026학년도 우수입학생 장학금 수여식 기념 사진. ©한동대

한동대학교(총장 박성진)가 최근 '2026학년도 우수입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우수 신입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신앙적 배경과 학업 역량에 겸비한 신입생을 선발해 입학과 동시에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김종민 장학금'은 선교사 자녀 전형 지원자 가운데 최우수 학생 1명을 선발해 4년간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총 4,4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에스겔 선교회 장학금'은 선교사 자녀 1명과 목회자 자녀 1명을 각각 선발하며, '차세대 리더(이윤섭 장로) 장학금'은 수사정시 우수 입학생 7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장학금은 등록금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해외 인턴십, 한동대학교의 대표 글로벌 프로그램인 글로벌 로테이션 프로그램(GRP, Global Rotation Program) 등에 활용할 수 있다. GRP는 학생들이 해외 현지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전공 지식을 활용해 실용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과정이다. 또한 성적 우수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박성진 총장은 수여식에서 "오늘 장

학금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귀한 존재"라며 "이 장학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담대히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민 장학금' 수혜자 이산지 학생은 "GRP와 해외 인턴십에 참여해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맡겨진 자리에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에스겔 선교회 장학금' 수혜자 권승현 학생은 "장학금의 뜻에 걸맞은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며 "전공 탐색 제도를 통해 융합 진로를 설계하고, 부모님이 선교지에서 섬기신 것처럼 배운 지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차세대 리더(이윤섭 장로) 장학금' 수혜자 임시후 학생은 "장학금을 학업과 성장에 깊이 연계해 지혜롭게 사용하겠다"며 "담대히 도전하고 꿈꾸는 활동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대학교는 앞으로도 선교사·목회자 가정과 신앙 공동체가 배출하는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지동 기자

예수전도단, DTS 훈련 현장성 강화와 디지털 미디어 선교 확장

'보내는 선교' 넘어 '일상의 제자화' 주력

세계적인 초교파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YWAM) 한국 지부가 2026년을 맞아 '모든 영역에 복음을(Seven Spheres)'이라는 기치 아래,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현장을 선교지로 전환하는 전략적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예수전도단의 핵심 사역인 DTS는 2026년 현재, 단순한 단기 훈련을 넘어 '직업과 신앙의 통합'을 목표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수료생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해외 오지 선교사로 헌신하는 케이스

만큼이나 전문 분야(예술, 미디어, 비즈니스 등)로 돌아가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자비량 선교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YWAM 관계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리라는 우리의 부르심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강의와 전도 여행으로 구성된 DTS 과정이 이제는 사회 각 영역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는 '현장 대응형'으로 더욱 정교해졌다"고 했다. 웹사이트에 공식된 사역 현황에 따르면, 한국예수전도단은 각 세대에 최적화된 선교 동력을 가동 중이다.

▲대학사역(MC)은 캠퍼스 내 전도 소그룹을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대학 문화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주력하며 ▲청소년사역은 미디어와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버 및 직장인 사역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뉴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훈련 과정을 확대 운영 중이다.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한 예수전도단 지부(Base)들은 지역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밀착형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각 지부는 단순한 거점을 넘어, 지역의 영적 필요를 진단하고 구제와 봉사, 중보기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변혁을 이끄는 '전략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예수전도단은 전 세계 180여



예수전도단 인천지부 정기모임 사진. ©패북

개국에 퍼져 있는 YWAM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 분쟁 지역 및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2026년 현재, 기후 위기와 난민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제 선교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장지동 기자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불혹 예배’를 아시나요?



공인 목사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시험을 못 보거나,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들에게 매를 맞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매를 많이 드시는 무서운 선생님들이 꼭 계셨고, 그런 분들은 보통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주요 과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실실한 학생들은 매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 학교(배재중학교)에는 국어 선생님이 특별히 더 무섭고 매를 많이 드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무서운 국어 선생님이 바로 약관 20세, 불혹 40세 이룬 한자입니다. 어찌나 선생님께서 매를 가르치셨는지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이 약관, 지립, 불혹 등을 달달 줄줄 외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우리의 영혼이는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맞으면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불혹의 뜻은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혹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 같았습니다. ‘사람 나이가 40세에 이르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 넘어가지 않는다. ~~ 않는다. 저는 정말 중학생 때 불혹을 배우면서 사람이 40세가 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어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유혹을 잘 이기고 계십니까? 그런데 최근 진정한 불혹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오한 불혹의 뜻이었습니다.

‘불혹 = 40세까지 자신이 즐겨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이었습니다. 40세까지 도박하던 사람

은 도박을 그만두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40세까지 바람피우고 살던 사람은 이것을 그만두라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습관처럼 되어 버린 것을 그만두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혹’의 영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에도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듣고, 본인의 방법대로 찬양하고, 본인의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린다 하고... ‘자기 습관화된 예배, 이것이 바로 불혹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본인의 방식이 우선이고, 공동체의 의견보다 자신의 경험이 우선인 예배 이런 예배에 익숙한 분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과 내가 경험한 예배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는 자기만족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얻는 예배입니다. 자신의 안목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며 삶입니다.

성경에도 자기 안목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롯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자신들이 거처할 땅을 고를 때, 롯은 나중에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 땅을 고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롯이 소돔 땅을 고른 이유가 물이 넘어서서라고 합니다. 즉 롯은 ‘물이 좋은 곳을 고를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양과 소를 키우기 가장 좋은 땅, 자신의 안목에 적절한 ‘물이 좋은’ 땅을 고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나의 안목과 나의 경험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으로 만

족하고, 그분만 예배하는 삶 아닐까요? 여전히 ‘불혹 신앙과 불혹 예배’가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내가 만드는 가짜 축복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줄 아십니까? 사실 가나안은 애굽보다 못한 땅입니다. 애굽 땅은 물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되지만, 가나안 땅에는 큰 강이 없고, 골짜기가 많아 비만 오면 비가 땅속으로 스며드는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축복을 경험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비

록 나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도 그분만 의지하고 예배할 때,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적을 경험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과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그분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축복으로 받고 사는 삶이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혹 예배를 버리고 그분만 높이고 의뢰하는 신앙과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적을 경험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공인

건국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고, 침신 신대원, 미국 리버티 신대원, 한양대 MBA 등을 공부했다. 교회의 변화를 소망하며 ‘교회혁명: 변혁적 교회’라는 책을 번역 출판하기도 하고, 젊은이를 사랑해서 KOSTA에서 강의하기도 한다. 지구촌교회 예배 목사로 섬기고 있다.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기 위한 객관적 요소: 두 번째

찬양대 지휘자님과 나눌 나의 여덟 번째 이야기는 합창의 실제적 요소 중 지난번에 이은 두 번째 요소입니다. 즉, 리듬과 음(소리)



이선우 지휘자

지난번에 필자는 합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 주신 가장 축복된 조화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합창음악을 만드는 방법인지 또 다른 객관적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리듬(Rhythm)

합창음악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 중 하나가 바로 리듬입니다. 리듬이란 말의 실제적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이 리듬인가? 리듬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리듬을 어떻게 정의하고 표현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축소판 옥스포드 사전을 살펴보면 ‘음악에 있어서의 리듬이란 “어떤 음들이 지속되는 동안에 박자들의 조직적인 묶음, 그리고 “이러한 음표들의 배열에 의한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듬이란 곡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

다. 어려운 말입니다. 즉, 움직임에 의한 흐름이 계속되어 밤과 낮이 이어지고 계절이 바뀌듯 그것은 마치 음악의 가락(선율)을 흐트리지 않고 원활하게 연주하는 연주자의 신비로운 능력과 같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리듬감은 박자를 분할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리듬의 중요성은 노래를 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휴지부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며, 이곳에서 리듬을 계속타고 있어야 바로 다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듬에 의한 박자는 모음소리와 꼭 맞게 연주되어야 리듬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발음이 잘못되고 합창이 지저분하게 들리는 것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맞지 않는 리듬입니다. 지휘자는 단원들에게 항상 살아있는 리듬감을 지휘를 통해 나타내야 하며 이 리듬 해결이 좋은 합창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리듬의 종류와 이에 따른 연주법은 제한된 지면상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발성, Tone)

흔히들 음악을 정의 할 때 “음악이란 음(tone)을 재료로 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과 음악철학 등을 표현해 내는 시간 예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음악이란 음악적 제반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이란 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이 부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리(음)은 인성의 소리를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휘자는 단원들이 내는 소리가 성악적인 소리인지, 교회음악적인 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소리의 구별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페라에서 노래하는 것과 같은 음색(Tone color)으로 성가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에 맞는 울림을 갖고 거기에 맞는 같은 진동 속에서의 음색의 통일, 알토는 알토에 맞는 소리를 내야 바른 합창일 것입니다. 소리는 진동과 같은 원리임에 그 질이 달라야 합니다. 소프라노가 알토처럼 소리를 낸다면 분명 잘못된 합창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음)을 어떻게 하여 합창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소리에 의한 발성법의 목표일 것입니다.

소리엔 분명 어둡고 밝음, 가벼움과 무거움, 일정한 진동에 의한 고른 소리와 그렇지 못한 불규칙 진동에 의한 지저분한 소리, 공명된 소리에 의한 둥근 소리와 전혀 공명이 되지 않는 얇은 소리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의 구별법과 만

들어 내는 법 등에 있어서 우리 지휘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1)홍성을 주로 하는 단는 소리
- (2)두성공명을 주로 하는 여는 소리
- (3)메조 보체(Mezza Voce, 중간 정도의 음량)

어둡고 밝고, 멀고 가까운 것 등과 악센트를 생각할 수 있듯이 소리(음)에도 어떤 성격을 띠는 빛깔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휘자의 예술적 지성이나 음악성에 의해서 선택될 문제일 것입니다.

성가를 부르는 소리는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합창단(찬양대) 구성원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리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첫 단계는 소리의 융합(Blending)일 것입니다. 소리 융합은 각 파트끼리의 소리, 색깔의 통일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나 선율파트인 소프라노 파트에 있어서 더욱 더 중요합니다.

이 소리의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을 예로 들자면, 먼저 지휘자가 제일 소리가 아름답고 합창에 좋은 소리를 내는 단원 A를 선정하여 그 단원으로 하여금 ‘우’ 발음(가장 개성 없는 발음)을 내게 한 후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소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원 B로 하여금 A와 같은 소리를 요구하여 A와 B의 소리를 하나 되도록 맞추고, 그 다음 또 C로 하여금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고 이후 모든 단원들도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 파트 전체를 하나의 소리로 만든 후 다른 파트도 그 파트에 맞는 음색과 음의 통일을 이룬 후 전 단원들의 소리를 하나의 질감의 소리로 만들어 낸다면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합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 둘째 조건은 소리에서 비브라토(Vibrato)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파장이 아주 작은 비브라토는 성가곡의 감동

을 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지휘자는 느리고 파장이 큰 비브라토 제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 발성으로서, 복식호흡에 기초를 둔 상태에서 목, 턱, 입술, 혀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소리를 멀리 불어서 내는 기분으로, 다시 말해 공을 가볍게 멀리 포물선을 그리며 던지는 것처럼, 배에서 시작하여 목을 열고 이마로 보내는 느낌의 방법으로 모든 단원들이 소리 내는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레가토(Legato)와 프레이즈 만드는 기술을 함께 터득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합창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느냐 하는 것이 발성법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소리의 일치감과 일체감, 진동의 통일성들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질을 높여 가라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선우

미국 유니온대학교 동대학원에서 작곡과 합창지휘를 전공하고 바이올라 대학원에서 지휘과정을 수학하였다. 현재 백석예술대와 백석콘서바토리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96년부터 합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이노스합창단을 창단하여 지금까지 사역하며 백석대학교회 사무장으로, 시온찬양대의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new
renewable
energy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시편으로 드린 예배형 콘서트 '클래식150'... 말씀·찬양의 은혜 나눠

원로 성우 최수민 씨 낭독자로 나서 관객들과 함께 예배

시편 말씀을 낭독하고 그 의미를 음악으로 고백하는 예배형 클래식 공연이 소규모 공간에서 깊은 감동을 전했다.

문화사역 단체 와이키키(Y-kiki, 대표 유진)는 최근 서울 갤러리카페 수애노399에서 제7회 '클래식150'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에는 약 75명의 관객이 참석했으며, 이전 공연을 꾸준히 찾아온 관객층이 약 80%를 차지해 이 공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클래식150'은 시편 150편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 낭독과 찬양을 결합해 한 편의 예배처럼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시편 낭독과 음악으로 이어진 신앙의 여정

이번 공연은 시편 8편, 15편, 23편, 42편, 51편, 121편 등 다양한 시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낭독자가 먼저 성경 본문과 묵상글을 읽고, 그 내용과 가장 밀접한 가사를 담은 찬양과 연주가 이어지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낭독은 원로 성우이자 배우 차태현 씨의 어머니인 최수민 씨가 맡았다. 그는 시편 말씀을 차분하면서도 깊은 울림으로 전달하며 △창조주 하

나님의 영광(시편 8편)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삶(시편 15편) △선한 목자의 인도(시편 23편) △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시편 42편) △회개와 고백(시편 51편) 등 신앙의 흐름을 묵상과 함께 풀어냈다.

특히 시편 42편 낭독에서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의 내면적 신앙 회복을 강조했고, 시편 51편에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의미를 전했다. 공연은 회개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구조 속에, 마지막 시편 150편의 고백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권면하며 마무리됐다.

◆관객과 가까이, 예배의 공간으로

이번 공연은 기존 공연장과 달리 갤러리카페에서 진행돼 연주자들이 관객과 가까이 앉아 대부분의 곡을 작곡한 상태로 연주하는 독특한 구성을 선보였다. 공연이라기보다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적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연주에는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세대 등에서 성악과 기악을 전공한 젊은 음악가들이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1회부터 함께 해 온 연주자들로, 공연의 취지와 신앙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트럼펫·트롬본 연주, 여성 아카펠라, 남성 중창, 합창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으



제7회 '클래식150' 콘서트가 26일 오후 서울 갤러리 카페 수애노399에서 진행됐다. ©와이키키

며, 시편의 메시지를 음악적으로 입체화했다.

◆'콘서트가 아닌 말씀 중심 예배'

기획자인 와이키키 유진 대표는 "클래식150은 콘서트라기보다 말씀과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라며 "한 편의 공연 안에 올바른 신앙관을 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클래식150'은 2023년 시작된 이후 배어홀, 광림교회 장천홀, 평창동 도암홀 등 전문 공연장에서 진행돼 왔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공간에서 더 많은 관객과 만날 계획이다.

유 대표는 "연주자의 찬양과 관객의 묵상이 함께 하도록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예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 사역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숨토 맨발길, 대구 대민교회에 조성 장애인·주민 위한 생활형 어싱 공간

친환경 휴 전문기업 웰스하우징(대표 김홍민)이 국제맨발걷기협회(회장 김도남)와 협력해 대구 대민교회 평안의 동산 선교회 앞마당에 약 50m 길이의 황토 맨발걷기길을 조성했다. 회사 측은 27일 공사를 마무리하고, 장애인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어싱(접지) 공간을 개방했다고 밝혔다.



대구 대민교회에 조성된 숨토 맨발길. ©웰스하우징

이번 맨발길 조성은 인근 학교 운동장 폐쇄로 기존에 맨발걷기를 하던 주민들이 활동 공간을 잃으면서 시작했다. 이에 평안의 동산 선교회가 교회 앞마당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기로 결정했고, 웰스하우징의 '숨토' 맨발길 시공팀이 참여해 사업이 추진됐다.

시공은 오전 8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북남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회 관계자 6명과 숨토 조성팀 2명이 함께 작업에 나섰으며, 현장에는 정신신체 장애인들도 참여해 흙을 고르고 다지는 과정을 도왔다. 관계자들은 "조성 과정 자체가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체험이 됐다"고 전했다.

맨발길에는 황토와 규사, 아자 로프 등 자연 친화적 자재가 사용됐다. 바다에는 원적외선 방출과 항균 특성이 있는 황토를 깔고, 배수와 발 자극 효과를 고려해 규사를 혼합했다. 길 가장자리는 아자 로프로 마감해 보행 안전성을 높였으며, 표면 마감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포함된 소재를 적용해 우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형구 기자

완공된 맨발길은 하루 세 차례, 회당 40분씩 운영되며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도보 생활권 안에서 활동을 하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회 측은 이 공간이 장애인들에게는 사회 참여의 장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휴식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국제맨발걷기협회도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다. 협회는 2020년 출범 이후 서울숲 맨발걷기학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맨발걷기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양 기관은 앞서 전국 맨발길 확대와 K-어싱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대민교회 사례는 그 첫 현장 적용 사례로 평가된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수영로교회 40 하나님의 손길(52회)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좁은 문, 좁은 길)	00 다시 보는 명실교 The울림(73회) 30 TV강단 하늘빛광성(백경수)	10 성경 속 전성사-에피소드 30 복음강단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김우준(지구촌)-복음 수업 1: 우리가 어찌다 이렇게 됐을까요?(고린도후서 5:17-19) 30 생명의 말씀	20 GOODTV 오늘의 찬양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자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194회)	00 생명의 양식 정윤(유성택) 30 말씀의 능력(전태사)(572회)	00 생방송 명실교회 새벽기도회 4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2회) 50 대한민국 복음이 답이다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50 생명의 말씀	1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20 사랑의 메시지 대치순복음 (한 별) 50 사랑의 메시지 원남 (연기움)	30 결여서 이스라엘 시즌2(5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81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2회)	00 정주금교회 주일예배실황 신영민 목사
	8:00 20 내 영혼의 찬양 Praise(2회) 40 서정희의 매일성경(2회) 시편 7-11편	2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30 체인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67회)	00 하나님의 음성(175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성)(4446회) 마태복음 20장	00 만나 워십 감동삼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3514회) 5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선지서편] 권수경 목사	3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106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4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1회)	10 새롭게하소서(11410회) 송추현 나은비 부부 1부	00 김재일의 광야예찬(4회) 김의신 의학박사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00 4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성지교회 김대근 전도사	00 매일 주와 함께	20 RE바이블(18회)	00 CBS NEWS 10 20 잘잘법 스페셜(18회) 김학철 교수	00 내 삶의 행복(197회) 50 대한민국 복음이 답이다(9회)
오후	11:00 00 7000미라클-예수사랑어기예(559회)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 행복한국교회 - 이성주 목사 50 신앙에세이 정훈화 목사(하늘비전교회)-선물 받은 사람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비전설교 새문안 (이상학)	1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263회) 50 예수동행일기(7회)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8회)	00 소문난 성경교실(643회) 장찬영 목사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17회) 50 성지가 좋다(519회) 갈릴리로 가는 순례길
	12:00 00 CTS뉴스 30 생명의 말씀 군포제일-권태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 어라(사도행전 3:1-10)	00 GOODTV 뉴스 30 행복한 심터 풍성한 (김성곤)	1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4회) 20 [말씀] 이인호 목사(다사랑의교회)(333회)	00 감시대 화요채플(72회) 30 TV강단 필그림(김형석)	20 말씀의 창 은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큰문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30 신앙에세이 배창호 목사(울산동성교회) 40 서정희의 매일성경(2회) 시편 7-11편	00 비전설교 중앙성결 (한기재)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성남 (양병열)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315회) 2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180회)	00 율포원(715회)	30 비전메시지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2441회) 50 지금 선교해YOU(36회) 유산기부프로젝트	00 GOODTV 특별간증 2025 감사특별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850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유태민) 30 새롭게하소서(11056회) 노진준 목사 1부	00 김상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154회)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74회)
	15:00 40 7000미라클-예수사랑어기예(559회)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 행복한국교회 - 이성주 목사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라다군	00 [말씀] 김한영 목사(베델교회)(316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450회) 레위기 9장	00 2026 명성교회 3월특별사역집회
	16:00 30 생명의 말씀	00 활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30 행복한 심터 평택성원(박종권)	00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38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4회) 5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122회)	10 통사조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59회) 5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8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마태복음 5:6) 30 신앙에세이 장준호 목사(담양금성교회)	00 다크 더 로드 20 사랑의 메시지 총만현(임다윗)	30 [말씀] 박신웅 목사(열방인온누리교회)(288회)	50 영혼의 양식_구세군대한분령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1회)	
18:00 00 생명의 말씀 새중요-황덕영,예배소서 21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에베소서 6:13-16) 30 부흥 어게인(53회) 기도와 회개 / 안동서부교회	00 라이프치 헤리티지 10 행복한 심터 순복음금성 (김형근) 40 더 깊은 울림 한성 워십	10 THE NEW 하늘빛항기(20회) 50 예수동행일기(14회)	00 TV강단 용인송전(권준호) 30 TV강단 여의도침례(국명호)	00 말씀의 창 율리시즈교회 사대천 목사 3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코소 : 차목(44회) 기독교 정신을 품은 대학들	
저녁	19:00 20 더 초존 시즌5(더빙)(2회) 모래 위에 지은 집 15세	00 장상길 목사의 생명의 장막비	50 예수동행일기(14회)	00 이영호목사의 땅끝까지 복음을(599회)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용수)	00 비전메시지 개명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20:00 30 쿠키 앤 크래임(2회) 더 초존 시즌 4.5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진주초대 (이경은) 40 GOODTV 특별기획 노보산에 남겨진 교세의 기적을 찾아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선한목자교회-(60회) 40 방주이GO(1회)	00 CBS비전특강 윤자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 크리스천칼럼, 인천제일(이재일)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277회) 10 복음강단 오송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생명의 말씀 송도가나안-김의철,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고린도후서 2:14-17) 30 매신저스 사랑한다(파티스처치, 김선교) 50 서정희의 매일성경(2회) 시편 7-11편	10 GOODTV 특별기획 폐허속에 갇힌 천년의 시간 40 GOODTV NEWS	00 성당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기성)(4446회) 마태복음 20장 50 살롬 뿔뿔(41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106회)
	22:00 20분 TS뉴스	0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3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 우리말성경 30 충성! 은혜로군(47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410회) 송추현 나은비 부부 1부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68회) 20 소문난 성경교실(640회) 이성훈 목사 여덟 번째 18강 언어로 보는 시편 : 삶이 무너졌을 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20회)
	23:00 1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선지서편] 권수경 목사 에스겔 1장	0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카일 아이들만의 지붕을 뚫는 믿음(3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4회)	10 2024 한소말교회 감사 부흥회(4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732회)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48회) 50 사순절 묵상, 예수님은 누구신가(12회)
	24:00 00 [CTS인물의 명차] 별세 목회자 이종표 목사의 죽어야 산다 2강 30 Calling GOD(2441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나	10 행복한 심터 청주중앙순복음 (안호성)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반태호 목사(방주교회)(106회)	10 잘잘법 스페셜(18회) 김학철 교수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39회)	00 한소말교회 한밤의 기도회(104회) 40 성경 속 전성사-에피소드
	1:00 00 [CTS 믿음의 명차] CTS특집다큐 여전도회 120년사 특집다큐 50 워킹온더바이블-성지탐방(2회)	1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중동 (김경문) 40 우리들의 지식산맥 12세	00 [말씀] 이재준 목사(온누리교회)(664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성물교회)(260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322회) 40 CBS 비전특강 윤자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00 선교는 지금 2(27회)
	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3515회) 한때는 교회에서 쫓겨났지만 이제는 환영받는 트로트 찬양 사역자로/구자영 목사&신승주 사모	10 사론의 꽃 필 때	20 [말씀] 김형서 목사(지구촌교회)(209회)	30 TV강단 승리(백규성)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선지서편] 권수경 목사 50 할렐스토리(93회) 주순영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Wreck The Roof(3회)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성교회)(618회)	00 율포원(248회)	00 세미한교회 주일예배실황 이은상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사임중 목사 30 내 영혼의 찬양	00 힐링스토리 10 새벽을 깨우는 말씀 꿈의 (김학중) 50 하루를 깨우는 365 통독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632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445회) 고린도전서 27장 50 CBS 교회소식(1040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4회) 김상복 목사 30 C채널 명실교 2차 복음으로(56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